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서의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

오준석* · 설원식**

<목차>

- I. 서론
- II.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특성과 한국의 현황
 - 2.1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영역에 대한 정의
 - 2.2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
 - 2.3 한국의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현황과 특징
- III.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 3.1 서비스 산업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 3.2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 IV.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서 외국인투자의 결정요인 분석
 - 4.1 외국인 직접투자의 결정요인과 관련된 선행 연구
 - 4.2 서비스 산업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제기되는 애로사항
 - 4.2.1 투자 동기
 - 4.2.2 서비스업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대한 경영환경 부문 만족도 분석
 - 4.2.3. 서비스업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대한 생활환경 부문 만족도 분석
- V.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서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VI. 결론

* : 경영학 박사 및 법학 박사, 응지세무대 회계정보과 부교수; ojs@wat.ac.kr

** : 경영학 박사, 천안대 경상학부 조교수; wssul@cheonan.ac.kr

I. 서론

21세기 세계 경제의 특징은 크게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과 글로벌 무한경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창의성에 바탕을 둔 지식, 정보기술(IT) 등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가속화되면서 국가경쟁력은 자본이나 노동과 같은 전통적 생산 요소 보다는 지식과 정보의 영향을 보다 많이 받고 있다. 또한,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는 경쟁자의 범위를 확대시켰으며, 이중 산업과의 융합화²⁾는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쟁 체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사의 자원을 핵심기능에 집중시키면서 다른 경쟁요소들은 아웃소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외부기업으로부터 조달하고 있다³⁾. 과거 대기업들이 직접 수행하던 상품 기획, 연구개발, 설계, 부품조달, 사후 관리 등과 같은 기능은 이제는 아웃소싱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미국의 구조적 불황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IBM사에서 처음 시도된 전략적 아웃소싱(strategic outsourcing)은 조직내부의 부서와 외부 서비스업체간에 동등한 조건하에서 경쟁을 하도록 함으로써, 비용절감과 가치혁신의 동시효과를 얻게 되었다. 이후 이스트만 코닥사나 영국의 BPX(British Petroleum Exploration)사가 연이어 관리부문 아웃소싱을 통한 비용절감에 성공함에 따라, 경리부문이나 총무부문의 서비스, 네트워크의 관리 및 조직의 데이터관리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처럼 1980년대 이후 제조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비즈니스 서비스가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잡으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은 최종 소비보다는 생산 과정의 중간재로서의 투입비중이 높은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⁴⁾으로 마케팅, 컨설팅, R&D, 인재파견, 시설관리 등 기업경영 프로세스의 일부를 외부에서 생산·공급하는 산업이라 정의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 대한 발전이 미미한 수준이다. 산업 규모나

2) industry fusion이라고도 하고 온라인 업체와 오프라인 업체간의 결합을 integration of brick & click이라고도 한다.

3) 이에 대해 마이클포터(M. Porter)교수는 이제는 기업과 기업간의 경쟁이 아니라, 기업의 부분과 외주업체의 경쟁이라고 하면서,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경쟁시대라고까지 하였다. 극단적인 예로 A종합상사가 가전제품수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자사 계열의 제품이 아니라 품질과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B사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계약을 맺는 것을 들 수 있다.

4) 마케팅적인 가치개념을 빌려 설명하자면 중핵가치(core value)는 주로 제조업체에서 생산한다면, 증폭가치(augmented value)는 주로 비즈니스서비스 업체에서 창출한다고 볼 수 있다. 좋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제조업체라면, 실내인테리어를 꾸미고, 청소를 하고, 분위기 있는 음악과 조명을 설치하고 서빙을 하는 것이 비즈니스 서비스업체라 할 수 있다.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토대로 판단할 때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면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역시 그 중요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유형의 표준화된 제품생산주도형 경제구조에서 경쟁력 있는 가치창출지향형 경제구조로 이행하여야 하는 한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국내 시장에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을 보다 발전시키고, 개방화된 경제체제에 맞추어 국제경쟁력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외국기업의 한국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⁵⁾. 특히, 사업의 상상력(business creativity)이라던가 서비스차별화 능력은 정형화된 것이 아니고, 모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을 선도하는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노하우를 이전받고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투자 의사결정은 단지 유치국 정부나 관련기관의 유치노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를 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이라는 시장이 주는 매력도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영역과 그 실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국가매력도(country attractiveness)를 확보하는 관점에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에 접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리라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전반의 현황과 특징을 정리하고, 나아가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서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개념 및 중요성
- 한국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특징
-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및 문제점
-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서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제언

본 연구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II장에서는 비즈니스 산업의 중요성과 한국의 현황에 대해 정리한다.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서의 외국인투자 현황은 III

5)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한 신흥공업국가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중의 하나가 가치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상상력(business creativity)의 부족이다. 극단적인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지 모르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잘 굴러가는 바퀴를 만드는 기술로, 바퀴를 만들어 외국의 다국적 기업에 수출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목표라면, 그러한 바퀴를 이용해서 널빤지를 붙여도 보고, 신발에다도 붙여보고, 모터도 달아보고 해서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가치를 만드는 노력에 역점을 두는 것이 선진국 다국적 기업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

장에서 다룬다. IV장에서는 외국인투자 부진의 원인에 대해 조명하며,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서 외국인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은 V장에서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VI장에서는 연구의 결론을 제시한다.

II.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특성과 한국의 현황

2.1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영역에 대한 정의

앞서 비즈니스 서비스를 증폭가치(augmented value)를 창출하는 활동이라고 간단히 개념을 언급하였지만,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 대해 아직 학술적으로 그 개념이 엄밀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다. 김희주 외(2000)는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을 “최종 소비 보다는 생산 과정의 중간재로서의 투입 비중이 높은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European Commission(2000)은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을 “기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이나 조직의 업무를 구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서비스 산업”이라 정의하고 있다. 한편, 산업자원부(2004)에서는 다른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산업으로서, 마케팅, 컨설팅, 리서치, 인재파견, 시설관리 등 기업경영 프로세스의 일부를 외부에서 생산·공급하는 산업이라 정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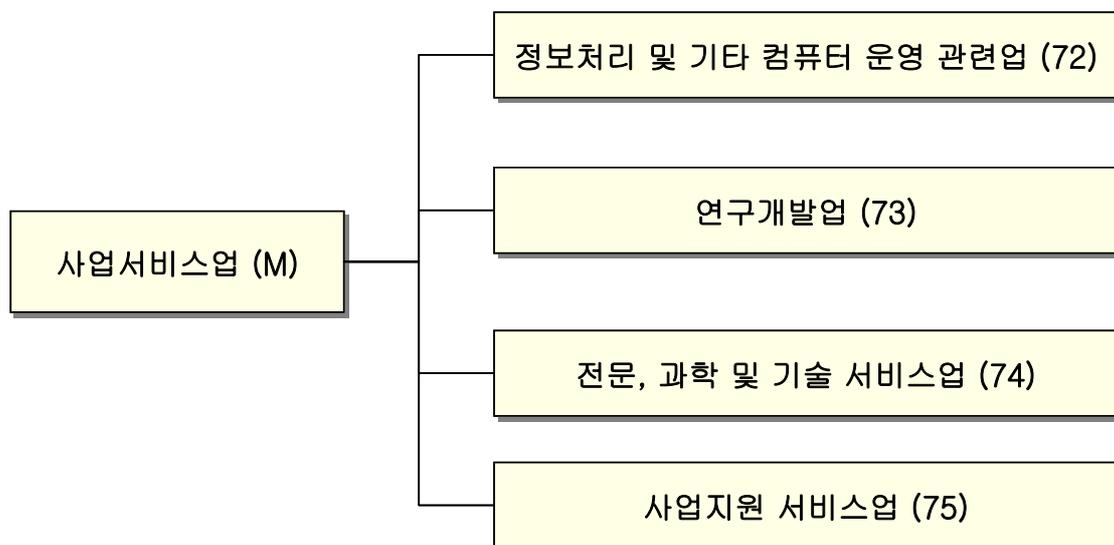
이처럼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 대한 뚜렷한 정의가 정립되지 못하다 보니,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영역에 대해서도 연구자에 따라 조금 다른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표 2-1>은 연구자에 따라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영역을 어떻게 인식하였는가를 정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박진수(2004)의 연구를 따라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영역을 통계청에서 분류하는 사업서비스 개념에 대응시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림 2-1>은 통계청의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주요 업종을 도시하고 있다. 사업서비스업은 크게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표준산업분류 코드 72), 연구개발업(7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4), 사업지원 서비스업(75)으로 나뉘어진다. 이들은 다시 세부 업종으로 나뉘는데, <표 2-2>에서는 각각에 대한 세부 업종을 정리하고 있다.

<표 2-1> 연구자에 따른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 대한 분류

연구자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 대한 분류
OECD(1999)	-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을 아래와 같이 분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컨설팅, 고용 알선 등 기업조직 서비스 • 시장조사와 여론 조사를 포함하는 마케팅 서비스 • 연구개발 및 기술 서비스 • 광고 • 성인 및 직업교육, 직업훈련 및 직업 재배치 등 인적자원 개발 서비스 • 컴퓨터 설비자문, 소프트웨어 자문·개발·공급, 자료 처리, 데이터 베이스를 포괄하는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김희주 외(2000)의 연구	- OECD(1999)의 연구를 기초로 한국 표준산업 분류상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을 아래와 같이 정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 회계, 시장조사 및 경영 상담업 • 건축, 엔지니어링, 기타 기술 서비스업 • 광고업 •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산업자원부(2004) 및 박진수(2004)의 연구	-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분류를 통계청에서 분류하는 사업서비스업(M)와 유사하다고 인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 연구개발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그림 2-1> 통계청의 사업서비스업(M)에 속하는 주요 업종



<표 2-2> 표준산업분류상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범위

분류번호	분류명
M	사업서비스업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721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722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723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 관리업
72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729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73	연구 및 개발업
73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3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	법무 및 회계관련 서비스업
742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743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4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5	광고업
746	전문 디자인업
75	사업지원서비스
751	사업시설유지관리 및 고용 서비스업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2.2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

비즈니스 서비스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1990년대 후반 이후,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은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고, 상품수출과 결합하여 수출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하며,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요소이며, 아웃소싱의 활용증가에 따라 장래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등 그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비즈니스 서비스업 자체의 수출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에버랜드는 2000년 대만에 놀이공원 운영 노하우를 100만 달러에 수출한 바 있으며, (주)SK는 2001년 쿠웨이트 석유회사인 KNPC사에 정유공장운영 노하우를 100만 달러에 수출하였다⁶⁾.

6) 훨씬 이전에 광주은행은 다운사이징을 성공시킨 후 다운사이징 know-how를 말레이시아 복화은행에 이전하고, 시스템을 customizing을 하고 계정계 전반에 대한 IT컨설팅

이처럼 국가 경제에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해외직접투자의 주류가 제조업에서 탈피하여 서비스업 위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버논(Vernon)의 수명주기설에 의해 제품의 성장기에는 선진국간에 해외직접투자가 발생하고, 표준화기에는 선진국에서 생산시설과 기술, 원료 등을 해외직접투자 등을 통해 후진국으로 이전하여 생산하고, 이를 선진국에서 수입하여 싼 값에 소비, 사용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다국적 기업 중심의 해외직접투자가 보편적이었다. 하지만, 국제간의 교류촉진과 운송수단 및 정보통신의 발달로 그러한 형태의 차익거래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이미 현지에 진출하여 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진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증폭가치(augmented value)를 창출하기 위해 영업활동의 촉매제(catalyzer)역할을 하기 위한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비즈니스 서비스업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관리기술이나 노하우(know-how)와 같은 경영관리기법 등은 다른 기업에 이전한다고 해도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공공재(public goods)적 성격을 지닌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환경과 정보통신이 발달한 상황에서는 공통적인 부분을 한데 묶어 관리하는 네트워크의 경제(economies of networking)를 누릴 수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실물투자가 병행되는 형태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인터파크나 다음(daum), e-bay, 아마존 닷컴과 같은 인터넷쇼핑몰 사업이나, 미국의 몬스터닷컴(www.monster.com)과 같은 사업의 성공과 성장은 네트워크의 가치창출능력이 신경제(New Economy)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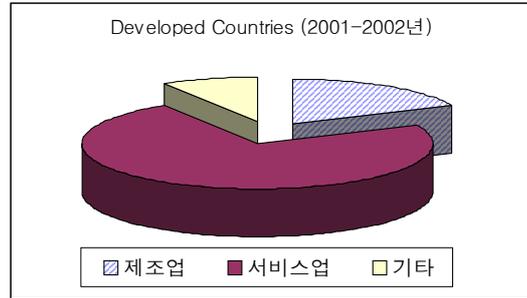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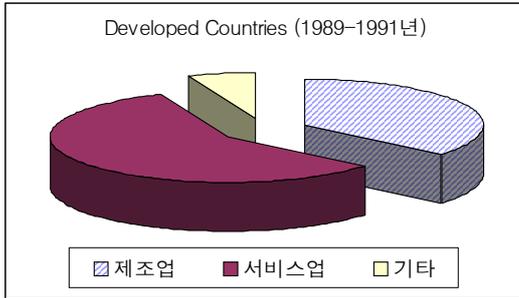
그간 제조업 위주였던 해외직접투자는 이제 서비스 산업 위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UNCTAD(2004)의 자료에 의하면, ASEAN 국가에서 서비스업과 관련된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은 2002년 30%에서 2003년에는 48%로 급증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2002년 65%에서 2003년 72%로 증가하였다. 이는 경제가 점차 서비스업 위주로 바뀌고 있으며, 금융, 통신, 무역 등의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인 인프라 스트럭처(infrastructure)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2-2>는 외국인직접투자에 있어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989-1991년 전세계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4%였으나, 2001-2002년에는 67%로 확대되었다.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선진국의 경우 1989-1991년 58%이던 서비스업의 비중이 2001-2002년에는 73%로 확대되었으며, 개도국은 1989-1991년 35%이던 서비스업의 비중이 2001-2002년에는 50%로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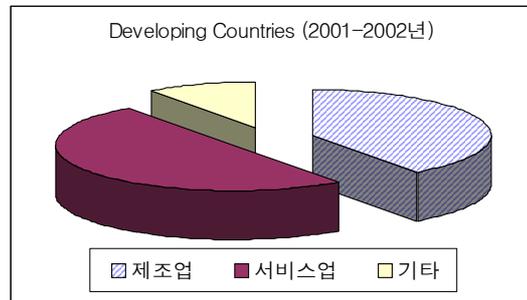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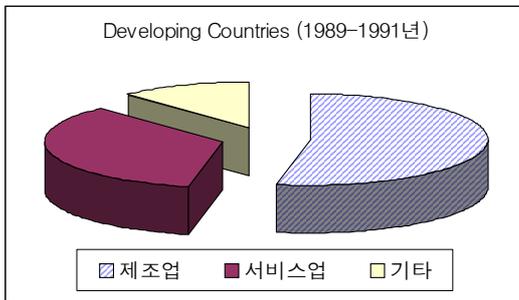
을 통해 큰 수입을 얻기도 했다.

<그림 2-2> 외국인직접투자에 있어 서비스업의 비중 증가 추세

선진국의 추이



개도국의 추이



자료 : UNCTAD(2004)를 토대로 정리

미국, 서유럽, 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은 1980년대 이후 해외직접투자를 서비스 분야에 가장 많이 집중시키면서 다국적 서비스기업들을 빠른 속도로 신설하고 확장중이다. 다국적 비즈니스에서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증가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다(반병길 · 이인세, 2005).

- <표 2-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선진국과 개도국 할 것 없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음
- 총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무역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현재는 30% 이상이며, बैं킹 · 금융 · 보험, 기술적 · 경영적 노하우, 국제운송, 국제관광 등의 순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정보기술(IT)의 급발전과 함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WTO 출범 이후 회원국들의 국내시장개방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무역 역시 계속 자유화되고 있음

<표 2-3>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업의 비중(2002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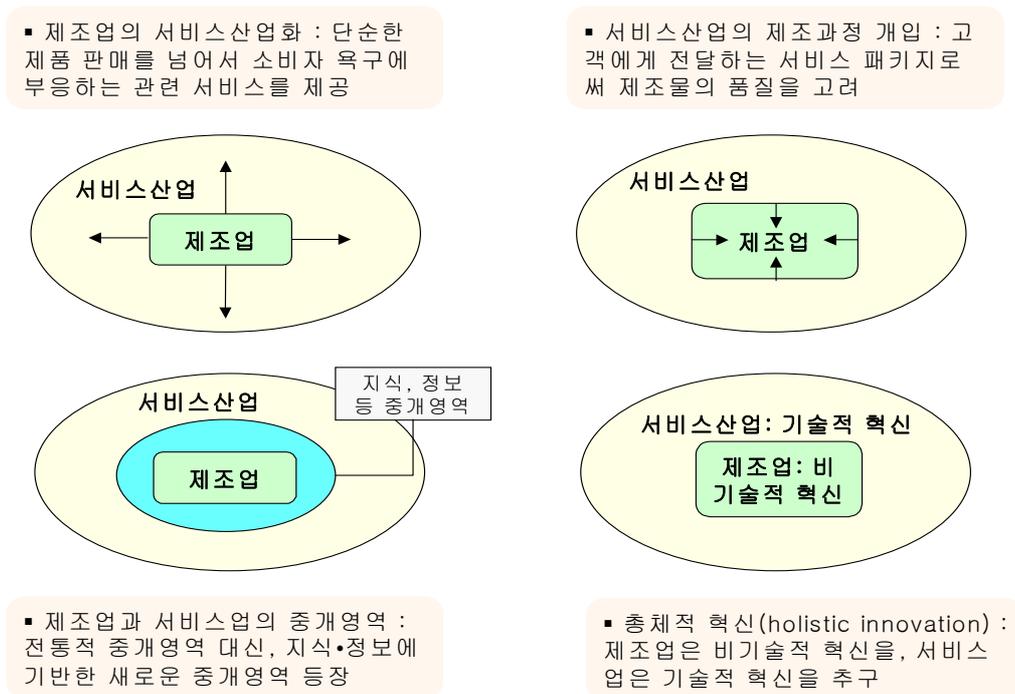
국가	서비스업의 비중	국가	서비스업의 비중
홍콩	87.0	일본	68.3
미국	76.6	대만*	67.8
독일*	72.5	싱가폴	63.0
프랑스	72.0	한국*	62.2
영국	69.0	중국*	32.3

주 : *는 2003년 기준임

자료 : 파이낸셜 타임즈, 2004년 9월.

최근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비즈니스 서비스와 관련된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서비스 산업화(servicisation)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인 IBM은 매출액의 50% 이상을 서비스 활동에서 창출하고 있다. 서비스 산업화 과정의 하나로 제조물의 서비스 encapsulation 현상이 등장하고 있는데, 미국의 Ford사는 자동차구매자를 위한 금융,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Xerox사는 사진복사용 장비를 리스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2-3>은 encapsulation과 관련된 다양한 모델들을 도시하고 있는데, 이처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생산과정의 중간재로서의 성격을 지닌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림 2-3> Encapsulation과 관련된 다양한 모델



컴팩사와 휴렛팩커드사의 합병은 유형의 제품에 무형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개발되고, 제품에 탑재되고, 신속하게 업데이트될 수 있는 경쟁력을 만들어 주었는데, 최근 이같은 소프트웨어 산업과 하드웨어 산업의 합병 경향을 산업융합(industry fusion)이라고도 한다. 결국, 비즈니스 서비스는 경영관리부문의 공통원가를 절감시키는 노하우(know-how) 측면과 산업융합 등의 보완적 결합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가치창출을 극대화시키는 능력, 그리고 새로운 제품과 시장을 만들어가는 이른바 블루오션(blue ocean)을 창출하는 능력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정리된다.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은 일본 “신산업 창조전략”의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카카와 쇼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지난 2003년 11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일본 산업의 미래 비전인 “신산업 창조전략”을 보고하였으며, 이 전략은 2004년 4월 제2차 중간보고서가 발표되었다(산업연구원, 2004). 이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일본 경제를 이끌 전략산업으로 <표 2-4>와 같은 7개 업종을 선정하였으며,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은 그 중 하나로 거론되었다.

<표 2-4> 일본의 신산업 창조전략에서 다루는 산업군

대분류	세부 업종	성장잠재력	과제
첨단 신산업 분야	연료전지	자동차나 가정 등에서 큰 시장이 기대, 환경 대책의 비장의 카드	시장창출을 위한 내구성, 비용 등
	정보가전	일본이 강점을 지닌 산업, 지속적인 첨단기술 개발과 시장 창출	수직적 제휴, 기술 개발, 인력양성, 지적 재산권 보호 등
	로봇	간병지원, 재해대책, 경비 등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대행, 일본은 세계 최대의 로봇 보유국으로 기술력에 강점	시장창출, 기술 개발 및 규제 완화
	콘텐츠	정보가전과 함께 큰 시장 기대, 일본의 뛰어난 콘텐츠가 전세계 문화계 시장에 침투	유통, 인력양성, 자금 조달 등
시장 니즈의 확대에 대응하는 신산업 분야	건강복지기기·서비스	건강한 장수사회 구축, 고령자의 사회참여 증가, 재정부담이 적은 복지 사업, 보건·의료산업의 국제적 전개	제도개혁, IT화, BT 향상 등
	환경 및 에너지 기기·서비스	깨끗한 물과 공기 및 토양 회복에 대한 엄청난 니즈, 일본의 뛰어난 환경·에너지 기술에 의한 기기·서비스 개발	환경규제, 기술 개발, 정보공개 등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구조조정에 따른 비핵심 업무 분리, 아웃소싱 확대 추세, IT를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 확대, 고용 창출 효과 막대	인재양성, 품질·생산성 향상 등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신산업창조전략(중간보고)”, 2004.3.23

일본 경제산업성이 향후 일본의 경쟁력을 주도할 7개 업종 중 하나로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를 선정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일본 정부가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 위주의 성장전략에서 탈피해 시장 확대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유망 서비스산업에도 눈을 돌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쟁국인 일본의 이같은 전략은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일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미래 성장 전략의 하나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을 심각히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2.3 한국의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현황과 특징

세계 경제가 지식기반 경제로 이행됨에 따라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 등 타산업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인 새로운 유망산업으로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의 기업간 인수합병으로 대형화 및 복합서비스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 경제에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2002년을 기준으로 할 때,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 고용비중은 5.3% 수준이다. 미국, 영국, 독일의 경우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이 GDP나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두자리 숫자인 것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은 아직 발전 초기 단계로 파악할 수 있다.

<표 2-5> 주요국의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위상

구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02)
GDP비중(%)	10.0	12.7	13.6	17.7	4.5
고용비중(%)	11.0	13.7	10.4	6.0	5.3

주: 한국은 2002년 기준이며, 기타 국가는 2001년 기준임. 단, 영국의 GDP비중과 독일의 고용비중은 2000년 기준임

자료: 산업자원부,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2004.9.18

반면, 한국에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성장속도는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은 통계청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1997년~2003년 동안 서비스업 내 주요 업종별로 사업체 수 및 매출액 증가율을 비교하고 있다.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할 때 1997~2003년 동안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6.98%로 다른 서비스업 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업종 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16.70%로 가장 높다. 보건 및 사회복지업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14.48%로 조금 낮게 나타났으며, 다른 업종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한자리 숫자 또는 감소에 그치고 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1990년대 말 이후 한국의 비즈니스 서비스업은 다른 서비스업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왔다고 하겠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한계기업들이 해외로 생산기지와 설비를 이전시키는 해외직접투자(outbound investment)가 꾸준히 진행되어 관리부문 인력을 중심으로 한 인력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지다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의 여파로 외국인 직접투자(inbound investment)가 유입되면서 이들 외

국기업의 국내 정착과 경영활동을 지원 내지 보완할 수 있는 초기의 비즈니스 산업들이 생겨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비즈니스 산업은 주로 소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치열한 원가경쟁을 하는 특성을 지녀서, 국제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표 2-6> 서비스업 내 주요 업종별 사업체 수 및 매출액 증가율(1997~2003년)

업종	사업체 수(개)			매출액(백만원)		
	1997년	2003년	연평균 증가율(%)	1997년	2003년	연평균 증가율(%)
비즈니스서비스	54,836	82,180	6.98	21,128,254	53,358,591	16.70
부동산 및 임대업	92,270	111,152	3.15	26,765,083	24,323,716	-1.58
보건 및 사회복지	59,144	69,425	4.09	17,850,149	30,660,963	14.48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95,718	122,168	4.15	15,654,531	27,391,716	9.77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233,384	265,700	2.18	13,440,694	19,426,022	6.33

주: 보건 및 사회복지는 1999년 자료임.

이처럼, 빠른 성장율에도 불구하고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업은 아직은 영세하고 부가가치가 낮다. <표 2-7>은 비즈니스 서비스업과 다른 서비스업간의 1인당 매출액, 1인당 인건비 비중 등을 비교하고 있다. 비즈니스 서비스업은 한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10.50명으로 다른 서비스업에 비해 월등히 많지만, 1인당 매출액은 6,182만원 수준으로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7,716만원) 보다 낮으며 부동산 및 임대업(6,144만원)과 비슷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종사자 1인당 인건비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생산성이나 매출 창출에 있어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

<표 2-7> 서비스업 내 주요 업종별 1인당 지표 비교(2003년)

업종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명)	종사자 1인당 매출액(천원)	종사자 1인당 인건비(천원)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비즈니스서비스	10.50	61,820	20,812	33.67
부동산 및 임대업	3.56	61,442	11,419	18.59
보건 및 사회복지	8.06	54,824	19,618	35.78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2.91	77,165	11,977	15.52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2.20	33,227	7,090	21.34

<표 2-8>은 주요 업종별 1인당 부가가치를 비교하고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비즈니스 서비스업은 고부가가치화 되지 못해 1인당 부가가치가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 업종에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8> 주요 업종별 1인당 부가가치 비교

(단위: 백만원)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운수	통신	문화·운동	비즈니스 서비스
70.9	41	65.4	74.9	232.7	91.6	28

자료: 한국은행(2003년 기준)

이처럼 한국의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은 영세화되고 부가가치 창출이 낮다 보니 국제 경쟁력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는 비즈니스 서비스업에 대한 무역 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2000년에서 2003년까지의 기간 내내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더구나,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수출은 연평균 -4.20%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수입은 연평균 5.75%로 증가하고 있어 수출-수입간 불균형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하겠다.

<표 2-9> 비즈니스 서비스업에 대한 무역 수지

(단위: 백만불, %)

구분		1997년	2000년	2002년	2003년	연평균 증가율
서비스수지		-3,200.3	-2,847.8	-8,197.5	-7,611.2	15.53
비즈니스 서비스	수지	611.5	-3,128.3	-3,601.8	-4,548.5	-239.7
	수출	8,633.2	7,199.8	6,005.5	6,672.3	-4.20
	수입	8,021.7	1,0328.1	9,607.3	11,220.8	5.75

자료: 산업자원부,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2004.9.18

<표 2-10>은 비즈니스 서비스업 내에서 주요 세부 업종별로 규모와 1인당 매출액 등을 비교하고 있다. 비즈니스 서비스업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72), 연구개발업(7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4), 사업지원 서비스업(75)으로 나뉘어지지만, 통계청에서는 연구개발업(73)에 대한 자료는 공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표에서는 나머지 3개 세부 업종에 대한 지표만을 비교하고 있다.

2003년말 기준으로 사업체 수를 보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53,947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종사자 수가 38만여 명으로 가장 많으며, 사

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 역시 20.14명으로 타 업종보다 높았다. 반면,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이 1억 4,153만원 수준으로 가장 높은데 비해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3,121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를 통해 볼 때, 비즈니스 서비스업 내에서도 세부 업종별로 고용 창출이나 매출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고용 창출 효과는 탁월하지만 부가가치 창출은 적은 반면,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은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가 적지만 1인당 매출액은 상대적으로 높다.

<표 2-10> 비즈니스 서비스업 내 주요 업종별 지표 비교(2003년)

업종	사업체 수 (개)	종사자수 (명)	매출액 (백만원)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명)	종사자 1인당 매출액(천원)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72)	9,353	144,379	20,433,761	15.44	141,52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4)	53,947	338,540	21,057,537	6.28	62,201
사업지원 서비스업(75)	18,880	380,209	11,867,293	20.14	31,212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서비스업 통계조사.

주: 통계청 DB에서 연구 및 개발업(73)은 통계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

한편, 한국의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기업이 느끼는 애로점은 <표 2-1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04년 5월~6월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조사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비즈니스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으로는 컨설팅, 아웃소싱, 인재파견, 텔레마케팅, 마케팅·여론조사 등 5개 업종을 택하였다. 반면, 수요기업으로는 정보통신, 증권, 건설 등에서 비즈니스 서비스를 이용해 본 기업으로 총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우선, 조사대상의 85%가 비즈니스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87%는 실제로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흔한 형태는 용역(29%), 인재파견(29%) 등이었으며, 계약기간은 1~2년이 전체의 56%를 차지하였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당초 기대수준이었다는 응답이 61%로 가장 높았으며, 기대 보다 좋았다는 응답도 26%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즈니스 서비스를 활용하는 기업 측면에서 느끼는 주된 애로사항은 비정규직 이슈, 노조협의 문제, 업무의 질 저하 우려, 기업정보의 유출과 같은 점으로 지적되었다. 반면,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낮은 가격과 영세업체 난립으로 인한 출혈 경쟁, 인프라 미비, 제조업 위주의 지원체도로 인한 소외, 산업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규

제 등을 주된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

<표 2-11>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주요 애로사항

대상	주요 애로사항 및 문제점
비즈니스 서비스 활용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니스 서비스 활용 확대에 대한 주요 장애요인으로 비정규직 이슈, 노조협의문제, 업무질 저하 우려, 기업정보 유출 등을 지적 ▪ 아웃소싱 활용과정에서의 분쟁에 대해서는 24%가 문제발생이 있다고 응답 ▪ 분쟁발생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인력의 질 및 업무수준이 낮고(41%), 사내 직원이라는 인식 부족(27%), 공급기간과 커뮤니케이션이 불충분(23%) 하다고 지적함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공급자간 전근대적인 거래관행: 수요기업은 핵심역량의 강화 보다는 비용절감에 치중하며, 공급기업은 영세업체 난립으로 출혈경쟁 ▪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미비: DB, 표준화, 서비스품질인증 제도 등이 미비하며,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 등이 부족 ▪ 제조업 위주의 지원제도: 서비스분야에 대한 지원실적이 전무하며, 각종 세제혜택도 제조업 위주로 구성 ▪ 각종 규제 및 산업 특성에 대한 고려 미흡: 행정처분이나 벌칙 위주의 법 규정과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 해석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비즈니스서비스산업 애로실태조사 결과”, 2004.6.25

위에서 분석한 점들을 토대로 한국 비즈니스 산업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는 있지만, 규모가 영세하고 생산성이 낮으며 국제경쟁력이 약해 수출 보다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 확대, 생산성 향상, 선진 다국적 기업 유치를 통한 노하우 습득과 같은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비즈니스 서비스가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된 선진국에서는 이미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의 기업간 인수합병으로 대형화 및 복합서비스화를 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세계 최대의 컨설팅 기업인 PriveWaterhouseCoopers는 지난 2002년 IBM글로벌 서비스에 합병된 바 있다. 또한,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선진국 기업간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해지면서 비즈니스 서비스 시장은 점차 글로벌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한국 역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 흐름에 따른 필수사항이라 볼 수 있다.

Ⅲ.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3.1 서비스 산업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1960년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관련된 정책 목표는 크게 4차례 정도의 변화를 겪어 왔는데, <표 3-1>은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1단계는 수출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인가하던 외자도입 정책기였으며, 2단계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허용산업을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으로 바꾸기는 했지만 주된 정책 목표는 특정산업의 발전 유도에 한정된 시기라 할 수 있다. 3단계는 외환위기를 겪던 시기로 외환보유고 확충을 목표로 적극적인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했으며, 2003년 9월 이후 현재까지는 4단계로 전략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라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시장개방과 규제완화를 추진하였고,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이 증가하면서 이를 헐값에 인수하려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외환위기 이후 2003년 9월까지의 시기가 외자유치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의 시기였다면, 2003년 9월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신규 첨단산업의 개발을 유도하고, 기존 산업의 첨단화를 지원하며, 비즈니스 중심국가의 실현에 기여하고,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거나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유치를 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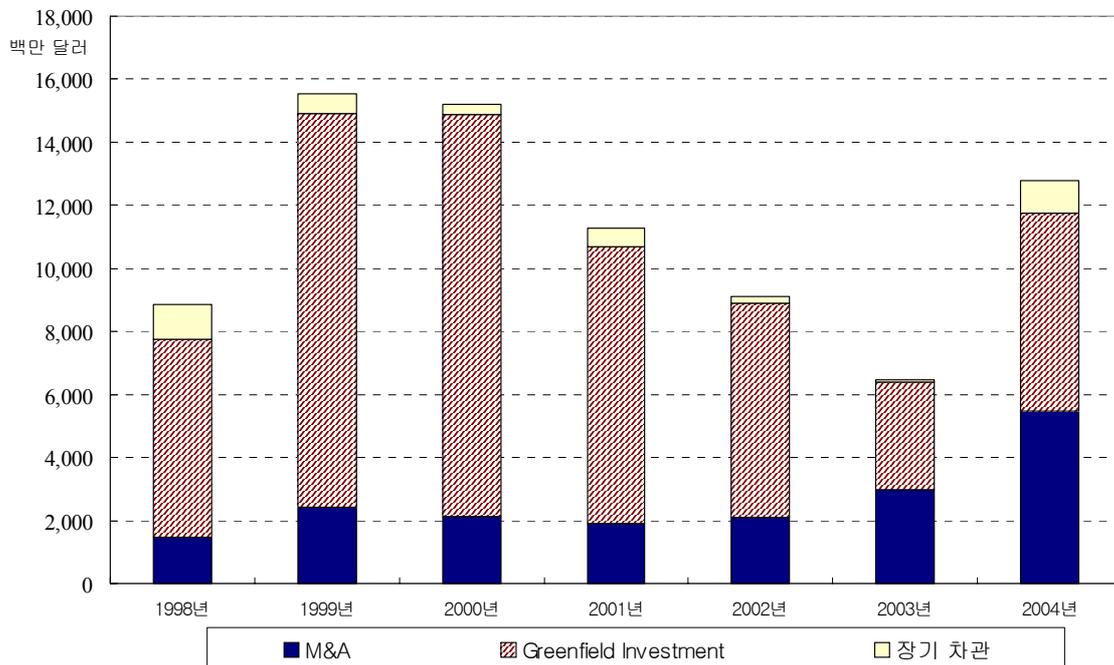
<표 3-1>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관련된 정책목표 변화

단계	시기	목표	주요 정책
1단계 외자도입정책기	1960년 1월- 1984년 7월	외화 획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산업에 대한 투자를 우선 인가하되 합작투자가 원칙 ▪ 외국인의 경영참여에 대해 제한
2단계 초기산업정책기	1984년 7월- 1998년 9월	특정산업의 육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업종을 Negative system으로 전환 ▪ 업종별로 상이한 투자비율 설정 ▪ 특정 산업, 특정효과를 위한 인센티브로 한정
3단계 복합경제정책기	1998년 9월- 2003년 9월	외환보유고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부실기업 인수 유도 ▪ 투자인센티브 수혜기간 확대 ▪ Cross-border M&A 시장 개방
4단계 전략적 외자유 치	2003년 9월 이후	산업구조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첨단산업 개발 유도 /기존 산업의 첨단화 ▪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외국인 투자 ▪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역발전을 위한 외국인 투자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하였지만, 외환위기의 극복과 함께 외국인 직접투자 역시 계속 감소하다가 2004년에는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3-1>은 1998년에서 2004년까지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총 규모와 투자형태별 규모를 도시하고 있다.

2004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97.4% 증가한 127.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연도별로 볼 때 역대 3위에 해당한다. 외국인 직접투자 누계액은 1962년 집계 이후 2004년 10월 1,0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9년을 기점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2004년에 다시 증가하였는데, 2004년은 시티그룹의 한미은행 인수, 푸르덴셜의 현대투자신탁증권 인수, GE의 현대캐피탈 인수, 상해기차의 쌍용자동차 인수 등 구조조정 및 전략적 목적의 대형 M&A가 많았기 때문이다. 반면, 2005년부터 조세감면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됨에 따라 2004년말에 투자신고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투자형태별로 본다면 2004년에는 신설투자(greenfield investment)에 비해 인수·합병(M&A)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는데 이는 금융업과 자동차업에서의 대형 M&A 성사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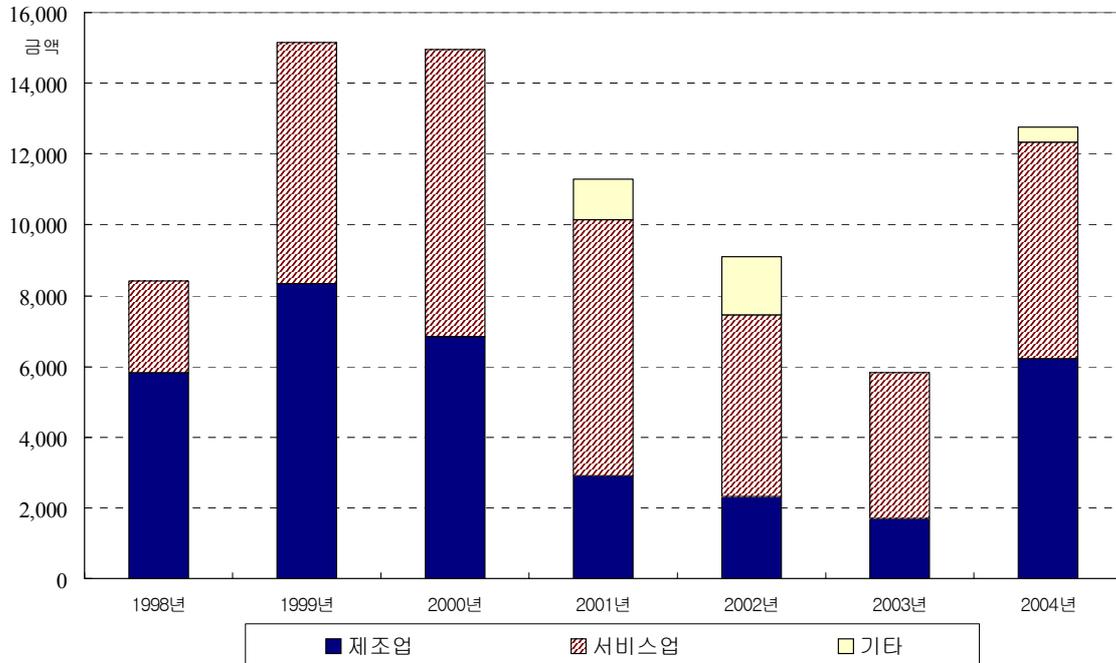
<그림 3-1>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총액 기준)



1999년 이후 2003년까지 외국인 직접투자가 감소하는 시기에서는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서비스업 보다 큰 폭으로 감소해 왔다. <그림 3-2>에서는 이같은 특징을 볼 수 있다. 특히,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매물이 점차 줄어들면서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감한 것으로 파악된다. 동기간 동안 서비스업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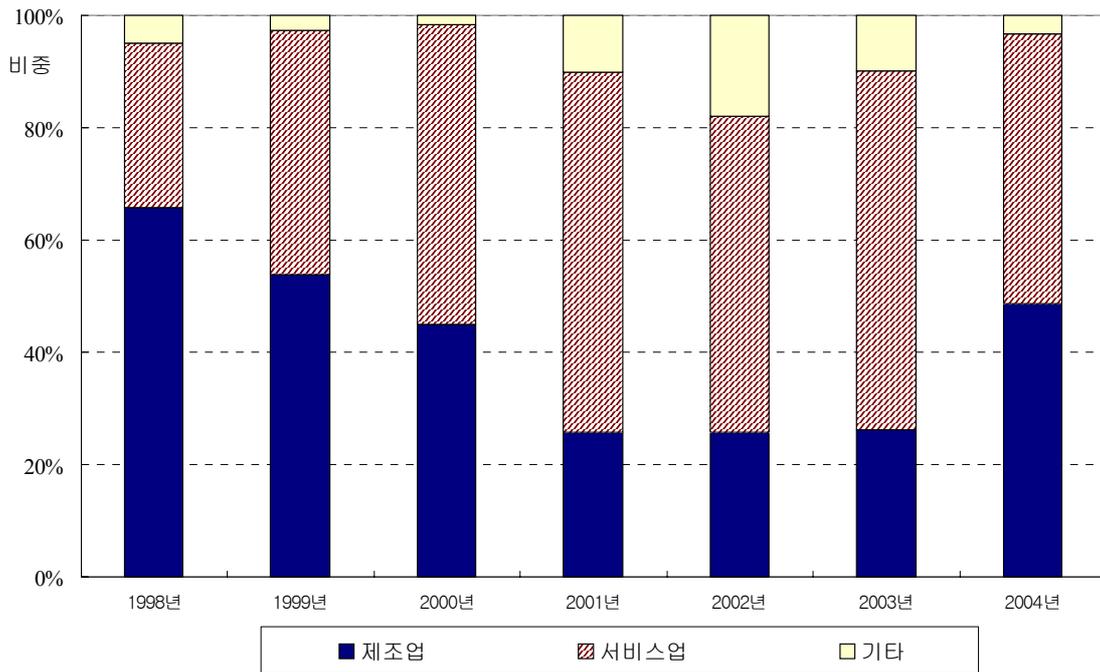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역시 계속 감소해 왔지만, 한국 경제의 서비스화가 심화되면서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제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3-2>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비교



<그림 3-3>은 외국인 직접투자 중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을 연도별로 비교하고 있다. 1998년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5.9%,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9.3%로 제조업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IMF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기업 자산과 부동산의 전반적인 자산디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외국의 투자자들에게는 저렴하게 기업이나 시설을 구입할 수 있는 이른바 Korean Opportunity였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2000년에는 제조업 45.0%, 서비스업 53.3%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2003년에는 제조업 26.2%, 서비스업 63.9%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제조업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 1999년을 전후로 해서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 본들이 본격적으로 시설가동과 관리를 담당하고 경영활동을 함에 따라서, 금융이나 보험 등 상적인 거래 및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국내에 들어왔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2004년에는 제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48.6%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쌍용자동차, 인천정유, S-LCD, 아사히초자 등 대형 프로젝트가 성사되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제조업의 비중 확대가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향후에도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확대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3-3> 외국인 직접투자 중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 비교



업종별 외국인 직접투자의 현황은 <표 3-2>에 정리되어 있다. 비즈니스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보면, 2003년에는 223건, 279백만 달러였으나 2004년에는 289건, 475백만 달러로 확대되었다. 투자규모로는 전년 대비 70.25%가 성장한 것으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성장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2004년 비즈니스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평균 투자규모는 164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금융보험에 대한 평균 투자규모가 2,379만 달러이며, 화공업은 2,055만 달러, 전기전자업은 1,082만 달러인 것을 비교해 본다면, 비즈니스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아직까지는 다소 영세한 수준이라 판단된다.

<표 3-2> 업종별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

(단위: 건수, 백만 달러)

구 분	2003		2004		누 계 (1962-2004)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축·수산·광업	18	6	6	1	216	417
제 조 업	586	1,697	689	6,211	11,258	45,943
식 품	31	42	31	118	631	3,783
섬유·직물·의류	24	14	19	7	625	873
제지·목재	9	36	7	20	222	2,536
화 공	76	689	67	1,377	1,734	8,329
의 약	6	16	19	167	252	965
비금속광물	22	41	15	116	424	2,031
금 속	32	150	42	105	702	2,304
기계및장비	88	242	102	358	1,624	4,370
전기·전자	193	298	272	2,944	3,140	15,013
운송용기계	62	121	76	907	900	4,934
기타제조	43	47	39	91	1,004	802
서비스업	1,918	4,132	2,330	6,126	17,371	52,166
도·소매(유통)	1,224	947	1,549	1,126	11,091	15,679
음식·숙박	91	211	100	53	815	5,365
운수·창고(물류)	63	116	72	372	596	1,756
통 신	16	505	14	44	201	1,389
금융·보험	157	1,650	135	3,211	1,239	14,552
부동산·임대	69	336	85	264	376	3,162
비즈니스 서비스업	223	279	289	475	2,415	3,294
문화·오락	25	24	38	470	270	5,256
공공·기타서비스	50	64	48	110	368	1,712
전기가스수도·건설	42	633	45	433	476	5,364
전기가스수도	3	91	21	405	73	3,002
건 설	39	542	24	29	403	2,363
합 계	2,564	6,468	3,070	12,770	29,321	103,890

자료: 산업자원부, “2004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및 2005년 전망과 과제”, 2005년1월5일

3.2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본 절에서는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현황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에서 발간하는 “외국인기업현황” 자료를 토대로 기업별 자료를

분석하였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박진수(2004) 등의 연구를 토대로 통계청 분류상 사업 서비스업을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으로 정의하였으며,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이 사업명이라고 기술한 부분을 토대로 해당 기업을 세부 업종별로 분류하였다. 세부업종은 사업서비스업 내 4개의 세부업종인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의미한다.

<표 3-3>은 1971-2004년까지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을 정리하고 있다. 동 기간 동안 총 1,523건의 투자가 발생하였으며, 투자금액은 20억 달러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아서 총 747건에 약 12억 달러의 투자금액이 유입되었다. 반면, 연구개발업은 총 40건에 6,711만 달러 유입에 그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주로 현지 내수시장 개척을 위해서 추진되거나 현지의 경영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에 대한 연구개발업 투자가 작다는 것은 한국의 연구개발 시장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 상대국에 비해 연구개발에 관련된 인프라가 뛰어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3-3>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1971년-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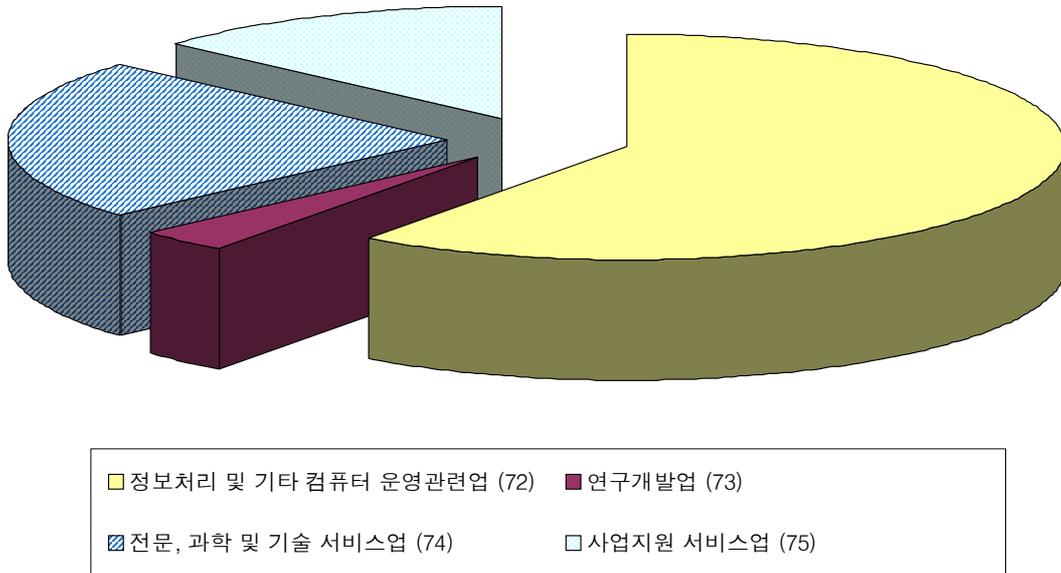
업종		투자건수	투자금액 (천 달러)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747	1,205,102
	연구개발업	40	67,11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03	463,444
	사업지원 서비스업	133	269,061
	<합계>	1,523	2,004,723

주 : 1달러는 1,000원으로 환산함

자료 :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현황」, 2004. 를 토대로 분석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서 세부 업종별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중을 보면, 투자건수로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이 49.0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39.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지원 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은 각각 8.73%, 2.63%에 그치고 있다. 투자 금액기준으로도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의 비중이 가장 높아서 60.11%를 점유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23.12%,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13.42%였다. 연구개발업은 3.35%에 불과하였다. <그림 3-4>는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을 중심으로 세부 업종별 비중을 도시하고 있다.

<그림 3-4>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서 세부 업종별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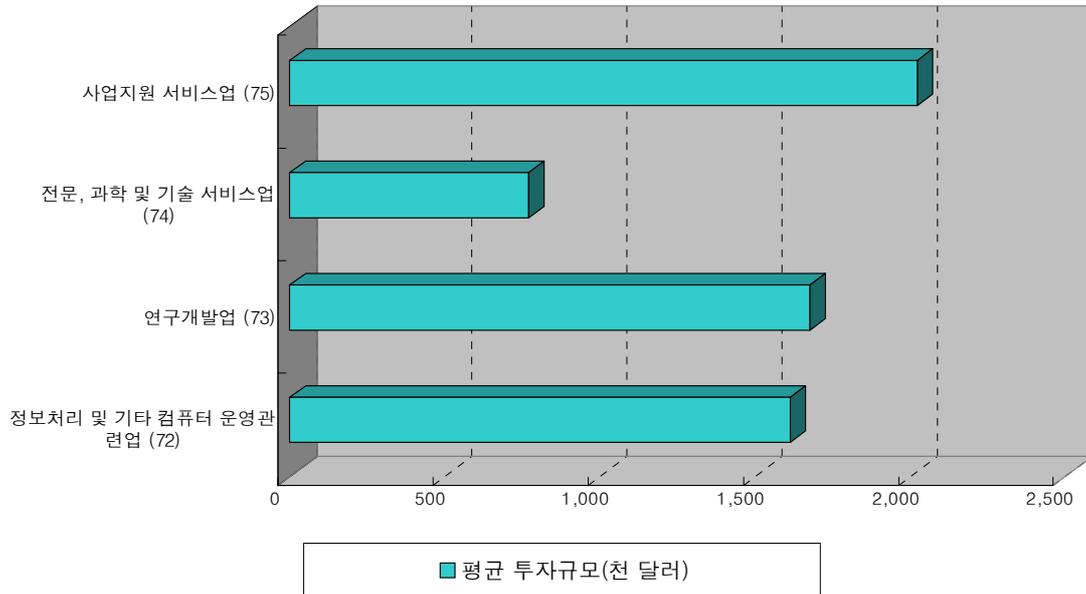


자료 :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현황」, 2004. 를 토대로 분석

1971-2004년 동안 비즈니스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평균 투자금액은 131만 6천 달러로 분석되었다.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업종의 평균 투자금액에 비해 다소 영세한 편이다.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자의 평균 투자금액을 세부 업종별로 정리한 결과는 <그림 3-5>에 나타나 있다.

세부 업종 중 외국인 직접투자의 건수나 투자금액이 가장 많았던 업종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이었던데 비해, 평균 투자금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은 약 202만 달러로 나타난데 비해,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은 161만 달러 수준이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연구개발업으로 평균 투자금액이 168만 달러였다. 연구개발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빈도는 매우 적은 반면, 평균 투자금액은 다른 세부 업종에 비해 다소 많다는 특징을 보였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평균 투자금액이 77만 달러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경영상담업, 시장조사업, 기술검사업 등과 같은 업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대개 규모가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5> 비즈니스 서비스업에 대한 업종별 평균 투자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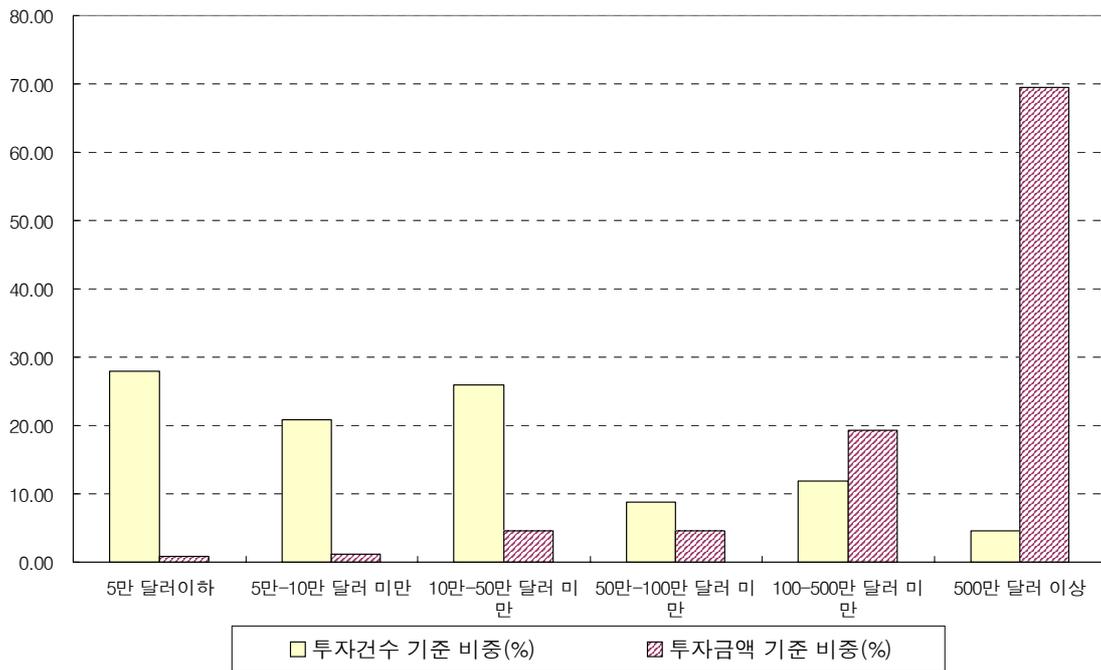


자료 :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현황」, 2004. 를 토대로 분석

<그림 3-6>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투자금액 수준별로 나눈 후에 투자건수와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구해 본 것이다. 먼저, 투자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5만 달러 이하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28.0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다수는 규모가 작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10만~50만 달러 사이의 투자가 26.00%였으며, 5~10만 달러 사이의 투자도 20.88%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50만 달러 미만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체 투자건수의 74.92%, 즉 4건 중 3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500만 달러 이상의 중대형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투자건수의 4.53%에 그치고 있다.

전체 누적투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500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체의 69.46%를 차지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반면, 투자건수로는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던 5만 달러 이하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누적투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8%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향후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는 투자금액이 크고 질적으로 우수한 다국적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림 3-6> 비즈니스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건수 비중 및 투자금액의 비중



자료 :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현황」, 2004. 를 토대로 분석

<표 3-4>는 비즈니스 서비스업에 대한 세부 업종별로 투자금액 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500만 달러 이상의 중대형 투자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500만 달러 이상이 투자된 전체 69건의 외국인 직접투자 중 62%인 43건이 이 업종에 투자되었다. 한국이 정보기술(IT) 수준이 매우 높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매년 빠르게 성장하는 업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시에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에 보다 많은 강조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7>은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의 지분율 비중을 분석한 것이다. 외국인의 지분인 20% 미만인지, 20-50%인지, 50-100%인지, 100%인지에 따라 구분해 보았다. 투자건수 기준 비중과 투자금액 기준 비중으로 나누어 본 결과, 지분율 수준이 달라지더라도 투자건수 비중과 투자금액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금액이 달라지더라도 지분율에서 보이는 특징은 유사하게 유지됨을 의미한다.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100% 지분을 가지는 투자가 가장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건수 기준으로는 44.39%,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44.94%의 기업이 지분 100%를 소유하며 투자하였다. 투자건수 기준으로 볼 때,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20% 미만인 경우는 17.27%, 지분율이 20~50% 미만인 경우는 16.55%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66.19%의 기업이 한국에 투자시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내 세부 업종별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비율에 특성이 나타

나는가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았지만, 별다른 특징은 발견되지 않았다. 분석 결과는 지면 상 생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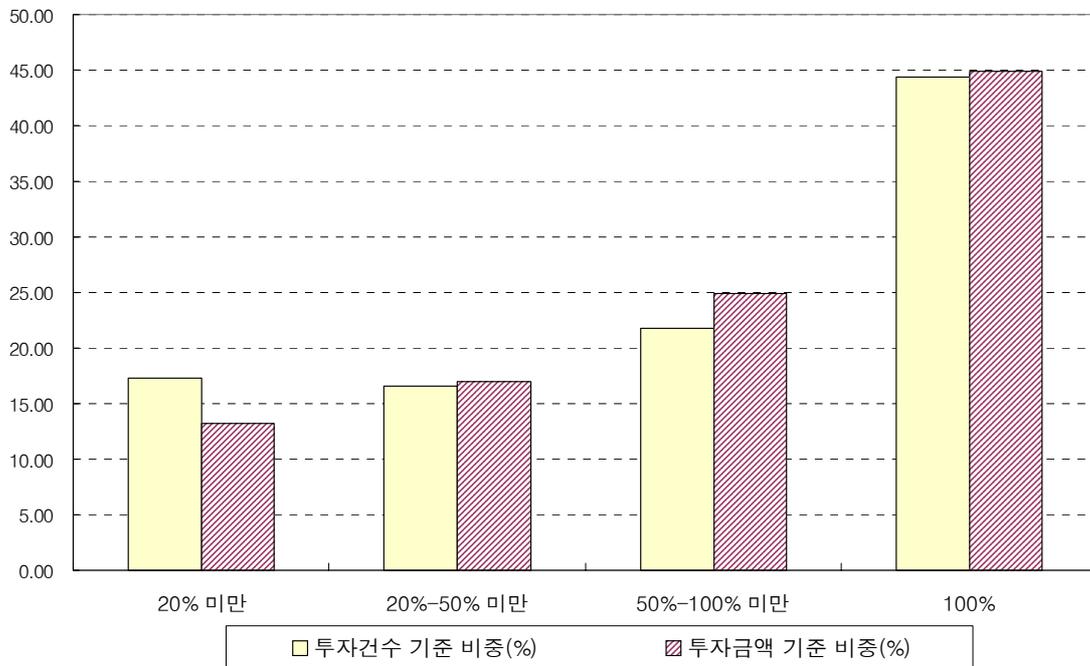
<표 3-4> 비즈니스 서비스업에 대한 업종별-투자금액별 외국인투자 분석(1971-2004년)
(건수, 천 달러)

업종	5만 달러 미만	5만-10만 달러 미만	10만-50만 달러 미만	50-100만 달러 미만	100-500만 달러 미만	500만 달러 이상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	189 (7,879)	126 (9,074)	222 (50,798)	70 (49,839)	97 (216,420)	43 (871,092)
연구개발업	10 (415)	5 (346)	7 (2,062)	6 (3,416)	6 (9,413)	6 (51,46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88 (7,747)	156 (10,604)	135 (30,806)	47 (32,178)	64 (138,843)	13 (243,266)
사업지원 서비스업	40 (1,596)	31 (2,112)	32 (7,482)	10 (7,803)	13 (23,428)	7 (226,640)
<합계>	427 (17,638)	318 (22,136)	396 (91,148)	133 (93,236)	180 (388,104)	69 (1,392,461)

주 : 괄호 안은 투자금액을 의미하며, 단위는 천 달러임

자료 :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현황」, 2004. 를 토대로 분석

<그림 3-7> 비즈니스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비율별 건수 및 투자금액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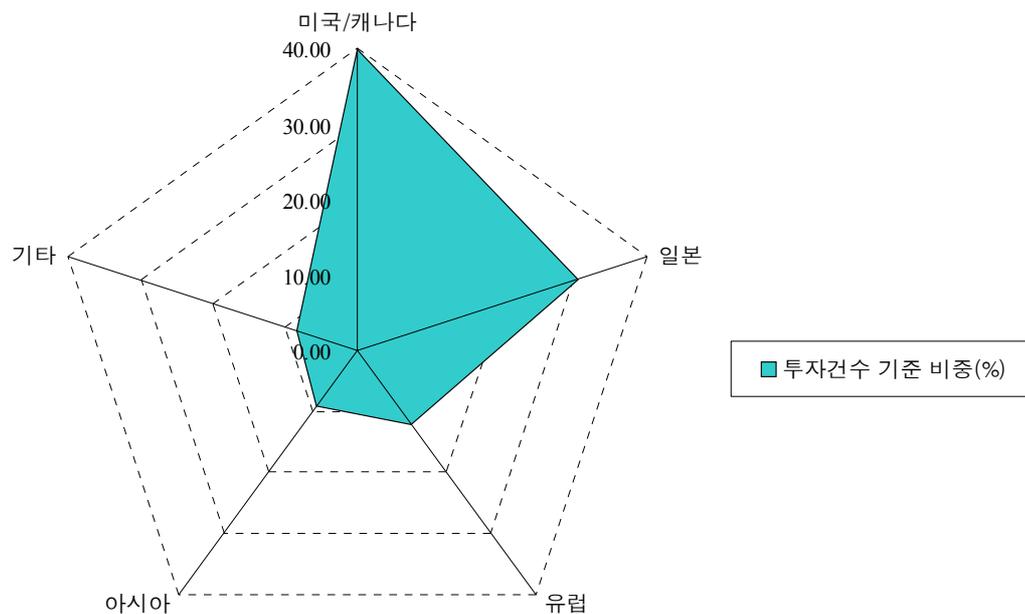


자료 :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현황」, 2004. 를 토대로 분석

어떤 국가의 기업이 한국의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 대해 투자를 많이 했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3-8>에 도시되어 있다. 투자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미국과 캐나다의 기업이 전체의 39.7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거의 대부분 미국 기업에 의한 수치로 미국 기업들의 대 한국 투자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는 일본 기업들로서 전체의 30.53%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캐나다 및 일본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해당 산업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특정 국적의 기업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서 유럽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2.15%에 그치고 있는데, 세계 경제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을 비추어 볼 때 향후 유럽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투자는 9.06%, 기타 지역에서는 8.47%를 차지하고 있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중국 등에서의 투자가 많았다. 기타 지역으로는 호주나 이스라엘과 같은 국가 뿐 아니라 버진아일랜드나 케이만군도와 같은 조세회피국(tax haven)으로부터의 투자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8> 비즈니스 서비스업에서의 투자국별 투자건수 비중



자료 :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현황」, 2004. 를 토대로 분석

투자국별 평균 투자금액을 비교한 결과는 <그림 3-9>에 정리하였다. 유럽 기업들의 평균 투자금액이 179만 달러로 가장 규모가 컸던 반면, 기타 지역에서는 8.16만 달러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타 지역에서의 투자시 투자금액이 작은 것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타 지역에는 조세회피국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 기업들의 평균

투자금액은 135만 달러, 미국/캐나다 기업들은 123만 달러 수준이었다. 유럽 기업들의 평균 투자금액이 가장 높다는 것은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중 유럽 기업들 비중이 낮다는 점과 함께 향후 유럽 기업들에 대한 전략적 타게팅(targeting)을 왜 필요한가를 인식시켜주는 중요한 기초자료라 판단된다.

<그림 3-9> 비즈니스 서비스업에서의 투자국별 평균 투자금액 비교



자료 :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현황」, 2004. 를 토대로 분석

<표 3-5>는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서 세부 업종별로 어떤 국가에서 투자를 많이 했는가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의 경우 미국 기업의 투자건수가 전체의 53.63%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는 일본기업의 투자건수가 미국/캐나다 기업의 투자건수를 앞지르고 있어 대조가 된다. 유럽 기업들은 사업지원 서비스업에서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림 3-10>은 1971-2004년까지 시기별로 볼 때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추이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여준다. 그림에서는 연도별로 투자 건수와 투자 금액의 변화를 볼 수 있다.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외국인 직접투자와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도 외환위기 후인 1998년부터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7년에는 58건, 3,078만 달러에 불과하던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8년에는 66건, 1억 3,689만 달러로 증가하더니 2000년에는 282건, 3억 7,049만 달러까지 확대되었다. 이후에는 투자건수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며, 투자금액 줄어드는 추세이다.

2000년 이후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서 신규 외국인 직접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

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의 원인이 국내 시장의 규모 한계 때문인지 아니면 해당 업종에서 한국시장의 투자매력도가 낮아서인지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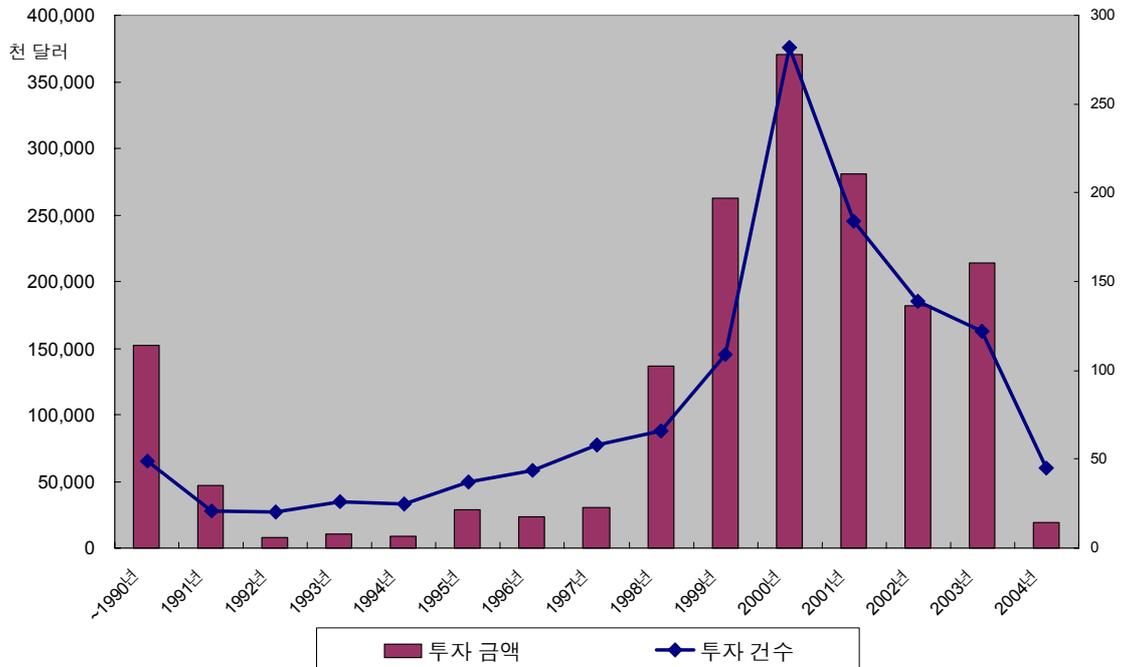
<표 3-5> 비즈니스 서비스업에 대한 업종별-투자국별 외국인 직접투자 분석(1971-2004년)
(건수, 천 달러)

업종	미국/캐나다	일본	유럽	아시아	기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325 (524,673)	196 (319,795)	73 (124,895)	92 (166,299)	61 (69,441)
연구개발업	16 (24,054)	8 (9,086)	4 (7,600)	9 (23,191)	3 (3,18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22 (141,726)	229 (227,249)	78 (59,349)	17 (5,641)	57 (29,479)
사업지원 서비스업	43 (51,862)	32 (70,185)	30 (139,740)	20 (4,154)	8 (3,120)
<합계>	606 (742,315)	465 (626,315)	185 (331,584)	138 (199,285)	129 (105,224)

주 : 괄호 안은 투자금액을 의미하며, 단위는 천 달러임. 최초 등록일 기준이므로 재투자 또는 증액투자는 제외한 결과임.

자료 :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현황」, 2004. 를 토대로 분석

<그림 3-10> 비즈니스 서비스업에서의 연도별 투자건수 및 투자금액 추이



주 : 최초 등록일 기준이므로 재투자 또는 증액투자는 제외한 결과임

자료 :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현황」, 2004. 를 토대로 분석

비즈니스 서비스업에 대해 세부 업종별-투자 시기별 외국인 직접투자를 분석한 결과는 <표 3-6>에 정리되어 있다. 우선, 모든 세부 업종에서 1996-2000년 기간부터 외국인 직접투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1996-2000년 기간에 비해 2001-2004년 기간의 외국인 직접투자 건수가 줄어들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생했던 기업 매물이 줄어들었으며, 한국 시장 진출을 원했던 다국적 기업 중 다수가 이미 한국에 진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연구개발업은 2001-2004 기간에 그전보다 더 많은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고 있어 대조가 된다. 향후 국내에 연구개발 관련 인프라 여건이 보다 개선된다면 연구개발업과 관련된 다국적 기업을 보다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표 3-6> 비즈니스 서비스업에 대한 업종별-투자시기별 외국인 직접투자 분석

(건수,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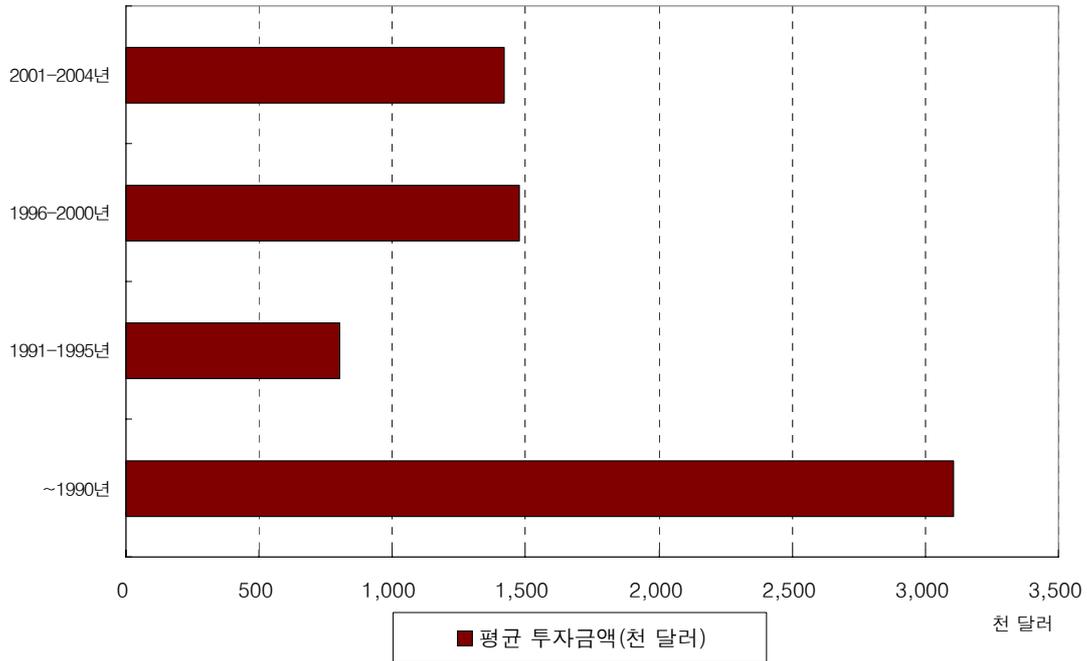
업종	~ 1990년	1991~1995년	1996~2000년	2001~2004년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27 (60,862)	37 (60,683)	293 (519,491)	228 (372,223)
연구개발업	0 (0)	1 (1,909)	13 (37,312)	18 (17,01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26,129)	81 (34,953)	214 (196,074)	196 (185,286)
사업지원 서비스업	5 (65,145)	10 (6,123)	39 (71,369)	48 (120,393)
<합계>	49 (152,136)	129 (103,668)	559 (824,246)	490 (694,918)

주 : 괄호 안은 투자금액을 의미하며, 단위는 천 달러임. 최초 등록일 기준이므로
재투자 또는 증액투자는 제외한 결과임.

자료 :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현황」, 2004. 를 토대로 분석

앞서 분류한 시기별로 비즈니스 서비스업에서의 외국인들의 평균 투자금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3-11>에 도시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1990년 이전에 투자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평균 투자금액이 311만 달러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반면, 1996-2000년에는 평균 투자금액이 142만 달러, 2001-2004년에는 148만 달러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1990년 이전에 투자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평균 투자금액이 그 이후보다 2배 이상 큰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시기의 한국은 개방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도 강하고 인센티브도 적던 시기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규모가 큰 다국적 기업으로 제한되며, 이들은 국내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투자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3-11> 비즈니스 서비스업에서의 시기별 평균 투자금액 추이



자료 :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현황」, 2004. 를 토대로 분석

한국의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 대해 지난 1971-2004년까지 직접투자를 행했던 외국인 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비즈니스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8년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까지 크게 증가해 왔으나, 2001년부터는 투자건수나 금액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세부 업종별로는 주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위주로 투자가 편중되어 왔다. 외국인투자자들의 평균 투자금액은 131만 6천 달러로 다른 산업과 비교해 볼 때 다소 영세하다. 특히, 50만 달러 미만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체 투자건수의 3/4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500만 달러 이상의 중대형 투자는 5% 미만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누적투자금액 측면에서 볼 때는 500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대형 투자 여력을 갖춘 다국적 기업의 유치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500만 달러 이상의 중대형 투자가 주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에서 발생했다는 사실과, 한국은 정보기술(IT)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시장이라는 점은 향후 다국적 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해야 할 업종은 정보기술(IT)과 관련된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임을 인식시켜 준다.

현재까지 한국의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 투자한 기업을 국적별로 분석해 본 결과, 미국/캐나다와 일본 기업이 전체의 70%를 차지하여 외국인 직접투자가 특정 국가에 크게 편중되었음을 발견했다.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기업 중 유럽 기업의 비중은 12.15%에 그치고 있었지만, 이들의 평균 투자금액은 179만 달러 수준으로 미국이나 일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규모로 투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계 경제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과 한국에 대한 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향후에는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전략적 타겟팅(targeting)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2000년 이후 한국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국내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인지 아니면 한국 시장이 가지는 투자매력도가 낮아서인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추가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IV.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서 외국인투자의 결정요인 분석

4.1 외국인 직접투자의 결정요인과 관련된 선행 연구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매우 방대하며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결정요인과 관련된 주요 연구만을 정리하며, 그로부터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Root & Ahmed(1979)는 1966-1970년 41개 개발도상국에 투자된 외국인 직접투자의 투자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16개의 경제적 요인, 5개의 사회적 요인, 7개의 정치적 요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4개의 경제적 요인(1인당 총생산, 법인세 수준, 경제통합 정도, 교통과 통신발달 수준), 1개의 사회적 요인(도시화 정도), 1개의 정치적 요인(정권교체 빈도)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법인세 수준을 제외하고는 현지국 정부의 정책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세제관련 인센티브 역시 많은 나라에서 경쟁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기업들이 직접 투자한 42개국을 대상으로 해외직접투자국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Wheeler & Mody(1992)의 연구에서는 투자대상국 시장규모, 사회간접자본, 산업화 정도, 미국기업의 과거 투자 수준 등이 투자대상국 결정에 의미있는 변수로 나타난 반면, 세율이나 국가 개방도 같은 변수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Gastanaga et al.(1998)은 49개 국가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요인을 분석한 결과, 투자대상국의 경제성장률, 법인세율, 부패 정도가 유의미한 변수임을 발견하였다. 특히, 법인세율을 1% 인상시키거나 부패지수가 두 배가 되면, 외국인투자액이 0.0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료들의 업무 지연, 국유화 정도, 관세율 등은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한편, Altshuler et al.(1998)는 세계 57개국의 실효세율이 미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미국기업이 현지국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세후 수익과 현지 국가의 무역정책의 규제 정도를 개방과 폐

왜로 나누어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1988-1994년 동안 아시아 10개국에 투자한 미국기업들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투자유치 요인을 분석한 Lipsey(1999)는 투자대상국의 명목 GDP, 전년도 실질 GDP 성장률이 투자유치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이 결과로부터 시장규모와 경제성장정도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하였다.

Drabek & Payne(2001)은 국가투명성 지수가 외국인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991-1995년 동안 52개 국가의 투명성을 평균하여 국가 투명성 지수를 만들고, 이것이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통제변수들과 함께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가투명도는 외국인 직접투자와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 반면, 다른 변수들은 유의적이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다.

국외에서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 현지 시장의 규모, 경제성장정도, 법인세 수준과 같은 경제적 요인들이 외국인 직접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과 통신,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인프라 수준과 부패정도나 국가 투명성 같은 요인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관련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도 외국인 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보고되었다. 양동훈(2000)은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의 82.7%는 한국시장 개척을 위해 한국에 진출하며, 20% 이상의 기업이 높은 투자수익률과 양질의 노동력을 위해 한국에 진출한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한국의 노동환경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낮은 생산성으로 특징지어지고 노동쟁의 수준을 볼 때 노사관계가 상당히 적대적이며, 복수노조, 인사제도나 노동법 측면에서의 애매모호한 적용, 기업문화적 차이 등이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투자진흥기관의 투자유치활동이 외국인투자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100개의 해외지역에서 수집된 설문지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김완순·임성훈(2000)은 해외사무소의 수, 진출국수, 해외인원 비중과 외국인투자유입액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위한 투자진흥기관의 노력에 따라 투자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승래(2000)는 1967-1996년까지 30년간의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와 거시 경제변수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 직접투자는 시장규모 확대와 정(+)의 관계, 임금수준과 음(-)의 관계, 명목환율과 음(-)의 관계, 명목관세율과 양(+)의 관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같은 결과는 임금상승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저해하며, 관세율 회피를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인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김준영·이용섭(2001)은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효과를 분석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총실효세율 간에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 조세감면을 허용하려면 국내 실효세율을 인하시킬 때만 정책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기하였다.

6개의 일본 자동차 공장이 미국 내 입지를 결정할 때 공장유치 경쟁에 참여한 32개 주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여 로짓분석을 행한 민기(2001)는 주를 통과하는 고속도로 총 길이, 외국기업 투자유치와 관련해 배정된 예산액, 해외사무소 수가 많을수록 일본 자동차 공장을 유치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예상과 달리 재정지원과 관련된 인센티브는 투자 유치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이는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이 대동소이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정부, 관련 산업계와 개별 기업 간의 정책 조정이 투자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제적 요인이나 정치적 안정성 뿐 아니라 정책적 요인 역시 외국인투자 유치에 매우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민기(2002)는 한국을 포함한 44개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의 자료를 중심으로 투자지역 결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모색하였다. 법인세율, 투자관련 인센티브율, 투자관련 규제율과 같은 현지 정부의 정책적 변수와 더불어 비정책적 변수인 시장규모, 1인당 국민소득, 국가위험도 등 6개 변수 및 이들을 교차하여 만든 상호작용변수를 토대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현지국 시장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이 직접투자 유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정책적 요인인 법인세율, 투자관련 인센티브, 규제의 효과는 극히 제한적임을 발견하였다. 반면, 상호작용 결과를 보면 투자관련 인센티브, 투자관련 규제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고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법인세율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결정요인을 비교한 문승래(2002)는 한국에서는 시장규모와 외국인 직접투자가 유의적인 양(+)의 관계, 임금과 외국인 직접투자가 유의적인 음(-)의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반면, 중국의 경우 임금과 외국인 직접투자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중국의 임금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으로, 중국에 대한 가장 중요한 외국인 직접투자 요인은 저렴한 임금이라고 해석하였다.

ERT 및 세계은행의 자료를 이용하여 1987-1999년 동안 세계 해외직접투자(FDI)의 흐름을 분석한 이두환(2003)은 FDI는 여전히 시장규모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진입 제약과 외국무역제한 등에 대한 규제가 적은 국가에서는 FDI 유치가 뚜렷이 증가하는 반면, 규제가 많아 매력도가 약한 국가에서는 FDI 유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하종욱·최귀련(2003)은 산업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을 중심으로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1989-2000년까지 12개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광고집약도, 자본집중도, 매출액, 산업비교우위가 외국인 직접투자와 정(+)의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해 이들은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은 광고와 마케팅에 비교우위가 있으며, 이 비교우위에 의한 영향이 국내 기업들의 광고 및 마케팅을 통한 진입장벽 영향을 상회한다고 해석하였다. 또, 자본집중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많이 발생하며, 산업 규모가 큰 산업에 대해 투자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외국 기업들의 투자동기가 노동력 확보나 인근 시장 진출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시

장의 확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1981-1999년까지 42개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유입된 국별 외국인 직접투자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한 최창규(2004)는 양국간 경제규모가 클수록, 양국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우리나라 법인세가 낮을수록, 상대국통화 대비 우리 통화가치가 하락할수록, 우리나라보다 투자국의 대출이자율이 낮을수록, 우리나라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낮을수록 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가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한편, 기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의 추가투자와 관련된 연구도 보고되었는데, 임성훈(2003)은 자회사의 수익성, 자회사의 규모, 자회사의 통제력 등이 추가투자와 관련을 가진다고 제기하였다. 이두환(2000)은 추가투자는 정보습득 비용 측면에서 신규투자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기존 투자의 관리와 확대 유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해 보면 우선 외국 기업들은 주로 한국 시장 개척을 위해 한국에 진출한다고 판단된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나 거시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서 모두 동일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는 외국 기업들의 투자동기가 노동력 확보나 인근 시장 진출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국내 시장 확보이므로,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이나 관련된 규제 등도 동일한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투자진흥기관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은 투자유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선행연구에서는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투자 유치에 별도 도움이 안된다는 연구결과가 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경쟁국에서는 대개 어느 정도 비슷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인세율이나 조세 정책 역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제한적인 효과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 중 일부에서는 총실효세율 감면시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이 밖에도 양국간 거리나 통화가치의 차이도 투자 유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도 제시되었다. 한편, 투자유치 대상 기업에 대해 관련 산업계나 정부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가 투자 유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는데, 이는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이는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산업계나 정부 차원에서 대상 기업과 중장기적인 연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4.2 서비스 산업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제기되는 애로사항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해 느끼는 매력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

다. 본 절에서는 한국의 서비스 산업에 기투자한 외국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시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들이 겪는 주요 애로점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향후 추가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투자자로 볼 수 있다. 또, 이들이 지적하는 애로사항들을 분석하고 이를 시정해 나가는 작업은 비슷한 성향을 지닌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설문조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의뢰하에 한국개발조사연구소가 실시한 것으로 2004년 10월 수행되었다. 설문조사는 “2004년 외국 투자기업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라는 이름으로 수행되었으며, 총 223개 기업이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응답에 대해 분석한다. 설문조사에서는 업종을 제조업, 서비스업, 물류, 금융업, 건설업, 통신업, 도소매업, 기타 등으로 나누었다. 따라서, 설문에서 서비스업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주로 비즈니스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4.2.1 투자 동기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는 <표 4-1>에 정리되어 있다. 10개의 문항 중 2개를 선택하는 복수 응답이었으며, 주요 결과는 제조업, 비제조업 전체,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시장 성장 잠재력과 높은 시장 수요 때문에 한국에 진출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주로 한국 내수시장에서의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요 선행 연구에서와 동일한 결과이다. 이같은 결과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구별없이 거의 동일하다. 다만, 제조업에서는 생산효율성이나 우수 기술인력 확보라는 동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 등 인근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한국에 진출했다는 응답은 11~12%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중국 등 인근 시장 역시 충분히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을 거쳐 인근시장에 진출할 유인이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국인투자유치 인센티브가 중요한 투자동기라는 응답은 5% 미만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한국과 투자유치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 역시 비슷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투자유치 인센티브가 주는 매력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하겠다. 서비스업에 대한 응답 결과 역시 제조업이나 비제조업 전체와 비슷하다. 높은 시장 수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다소 낮고 산업 인프라나 기타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난 점만이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표 4-1> 한국에 투자한 동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위: %)

항목	제조업 (n=102)	비제조업 전체 (n=120)	서비스업 (n=40)
높은 시장 수요	48.0	43.3	25.0
중국 등 인근시장 진출 교두보	11.8	11.7	12.5
시장 성장 잠재력	54.9	65.0	52.5
생산 효율성	10.8	2.5	2.5
우수한 기술인력 확보	10.8	5.0	5.0
기술제휴 및 R&D 환경	6.9	4.2	5.0
부품조달 용이성	3.9	1.7	0.0
외국인투자유치 인센티브	2.9	4.2	5.0
산업 인프라	10.8	6.7	10.0
기타	2.9	8.3	15.0

주 : 2가지 항목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임. 비제조업 전체에는 서비스업, 물류, 금융업, 건설업, 통신업, 도소매업이 포함됨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4)를 토대로 분석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이 한국의 경영환경 전반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4-1>에 정리하였다. 경영환경은 노무, 조세, 물류, 금융 등 기업 경영에 영향을 주는 환경을 의미한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1점은 매우 불만족, 3점은 보통, 5점은 매우 만족을 의미한다. 전체 응답 기업의 만족도는 평균 2.79점으로 보통 수준을 하회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한국의 경영환경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라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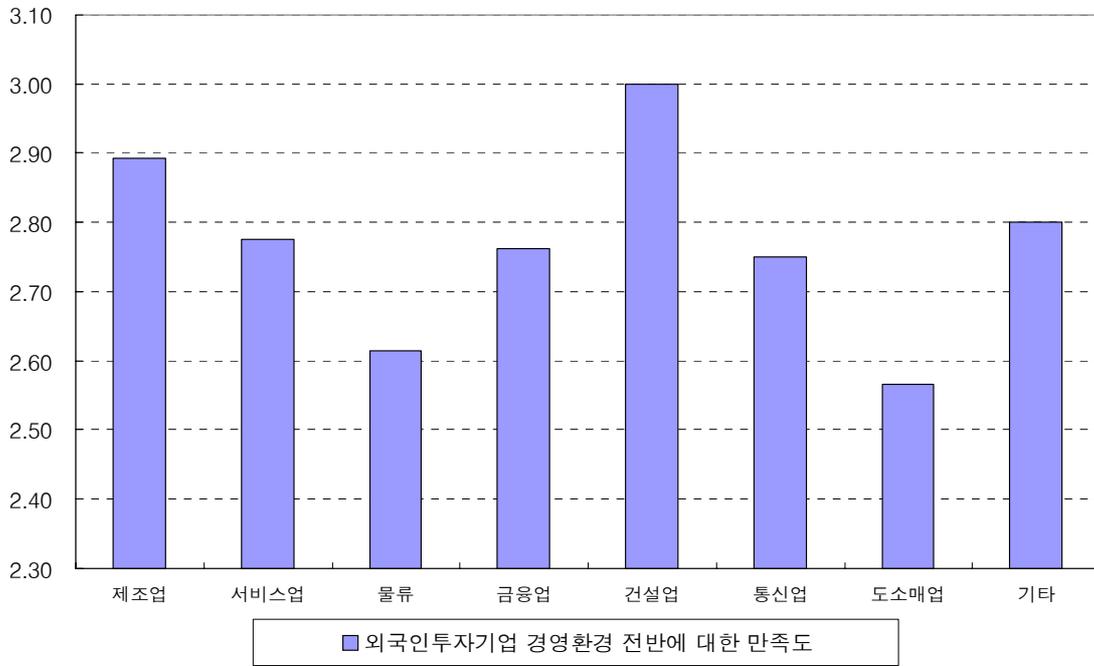
업종별로 분석해 볼 경우, 업종간 다소 차이는 있지만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경우라도 보통(3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종과 관계없이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의 경영환경에 대해 충분히 만족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건설업에 대한 만족도가 3.00으로 가장 높았으며, 도소매업에 대한 만족도가 2.5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서비스업에 대한 만족도는 2.78로 전체 평균과 유사한 값을 보이고 있다.

<그림 4-2>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한국에서의 생활환경 전반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를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생활환경은 교육, 의료서비스, 교통, 주거와 같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때 겪게 되는 환경을 의미한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역시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1점은 매우 불만족, 3점은 보통, 5점은 매우 만족을 의미한다. 전체 응답 기업의 만족도는 평균 3.00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경영환경 전반에 대한 만족도 보다는 약간 높은 값이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는 만족도가 평균 4.33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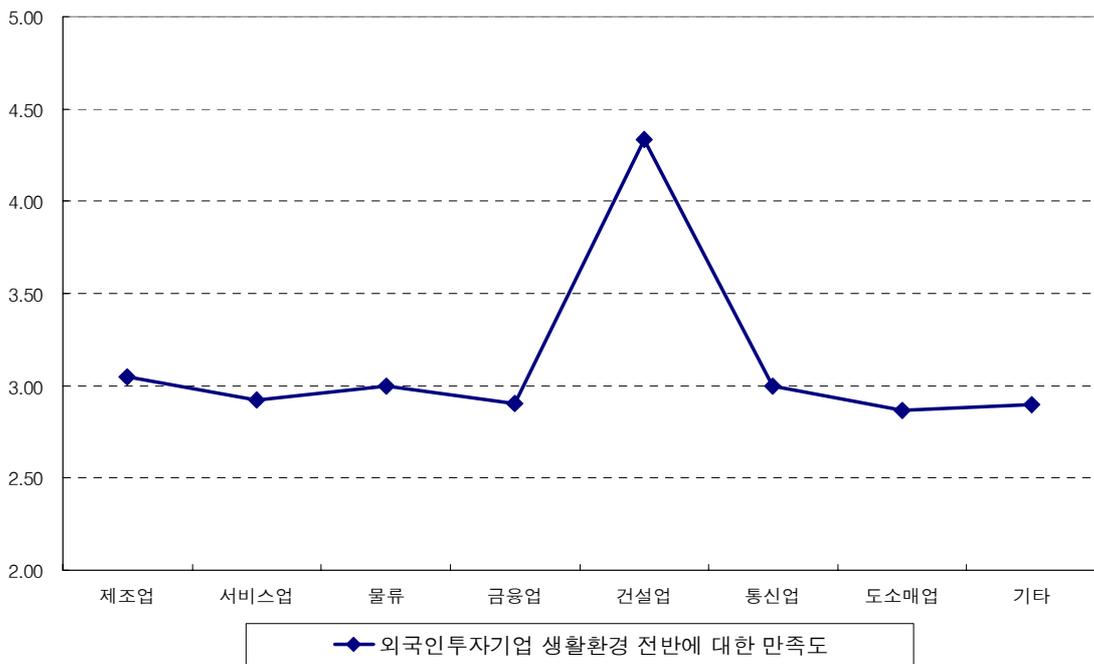
되었지만 표본수가 3개 기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석상 주의가 요구된다. 제조업은 3.05로 나타났으며, 도소매업이 2.87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서비스업은 2.93으로 평균을 약간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경영환경 전반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업종별 만족도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4)를 토대로 분석

<그림 4-2>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업종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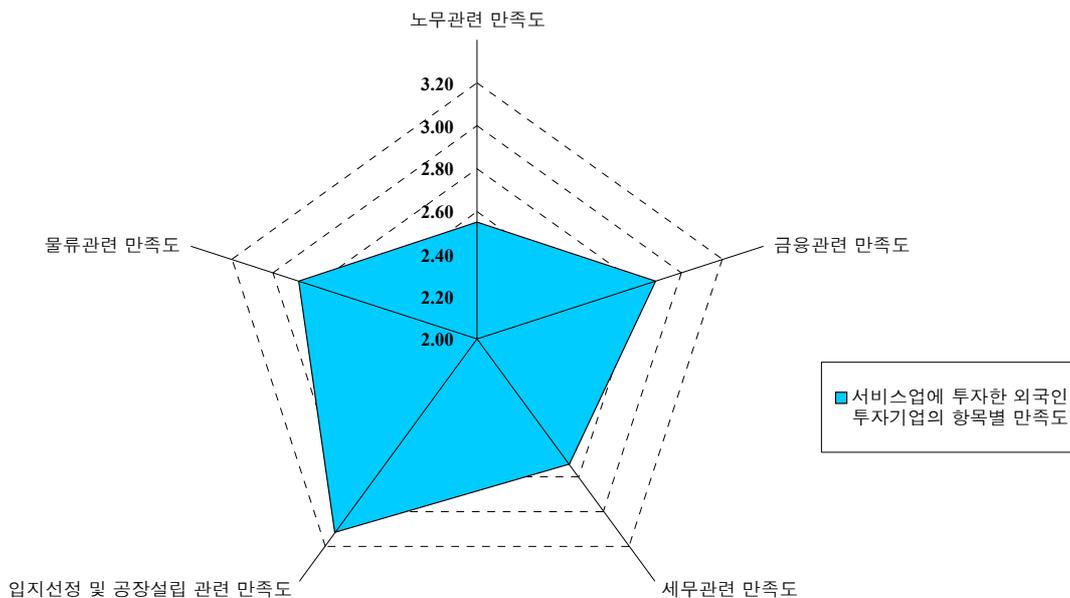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4)를 토대로 분석

전반적으로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은 경영환경이나 생활환경 모두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에서는 서비스업에 한정하여 경영환경과 생활환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본다.

4.2.2 서비스업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대한 경영환경 부문 만족도 분석

서비스업에 투자한 외국 기업의 경영환경에 대한 만족도 분석은 노무관련 경영환경, 금융관련 경영환경, 세무관련 경영환경, 입지선정 및 공장설립관련 경영환경, 물류관련 경영환경 등 5개 분야에 대해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4-3>에 도시되어 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1점은 매우 불만족, 3점은 보통, 5점은 매우 만족을 의미한다.

<그림 4-3> 서비스업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 항목별 만족도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4)를 토대로 분석

응답결과를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경영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분야는 입지선정 및 공장설립관련 경영환경으로 3.1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통(3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만족도이다. 나머지 4개 경영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보통(3점) 이하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무관련 경영환경(2.55점)과 세무관련 경영환경(2.73점)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정한 항목에 대해서만 외국인 투자기업이 불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경영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에 대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한국 시장의 경영환경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이지 못함을 의미하며,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각각의 경영환경 분야에 대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점을 분석한 결과는 <표 4-2>에 제시되어 있다. 앞의 그림에서 분석하였던 5가지 경영환경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응답을 정리하고 있다. 먼저, 노무관련 경영환경 측면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노조문제, 고용관련제도, 임금이나 퇴직금 제도 등에 대해 가장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자유로운 해고가 불가능하고, 퇴직금 지급이 필요하며, 노조의 힘이 강한 한국적 현실에 대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관련 환경에서는 제출 서류의 과다, 본사-자회사간 채권채무 상계 절차의 복잡성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문제는 향후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맞추어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세무 및 입지 관련 경영환경에서는 2순위로 조세당국의 고압적 태도와 담당 관청의 행정처리 지연과 같은 애로사항이 지적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한국 시장에서 경영활동을 편히 수행할 수 있는 지원제도도 매우 중요하다. 조세 당국의 친절함 태도나 담당 관청의 신속한 행정처리는 특별한 추가비용 없이 단기간 내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담당자의 인식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과제일 것이다. 물류관련 경영환경에서는 고질적인 도로교통이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었다.

<표 4-2>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환경 중 가장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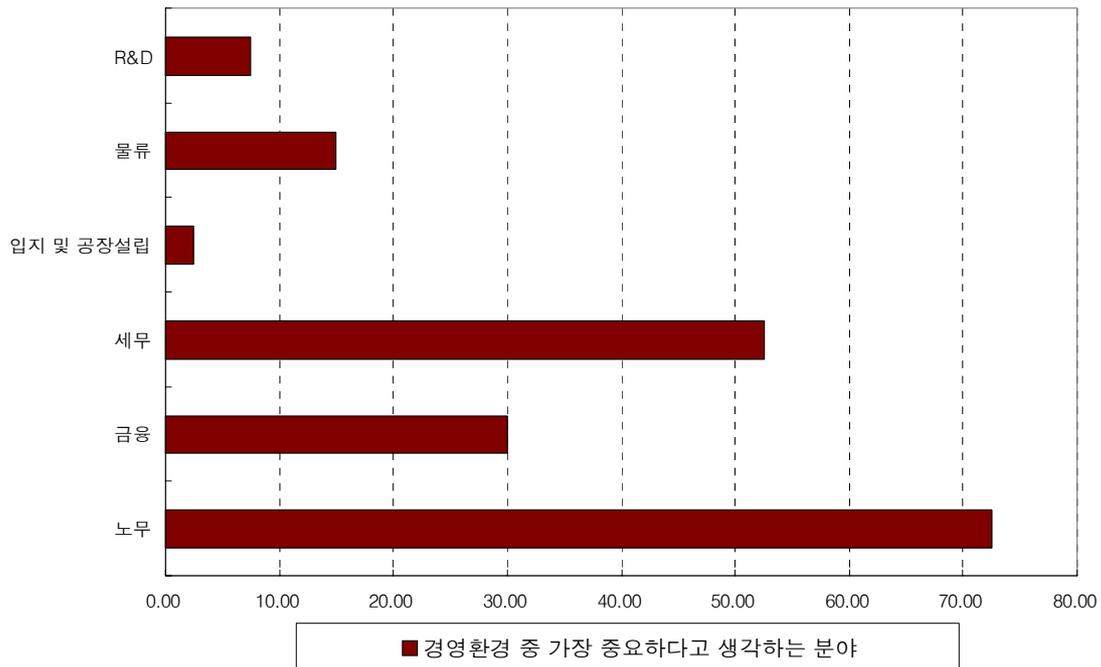
경영환경	1순위	2순위
노무관련 경영환경	노조활동 관련 제도, 관행 등	고용관련제도 임금 및 퇴직금 제도
금융관련 경영환경	대출시 제출서류 과다	본사와의 채권 채무상계 절차 복잡
세무관련 경영환경	빈번한 세법개정, 세법 개정 정보 습득을 위한 영문자료 부족	조세 당국의 고압적 태도
입지선정관련 경영환경	각종 인프라 부족(도로, 교통편, 주거숙박시설, 교육시설, 취미생활공간 등)	담당관청 행정 처리 지연
물류관련 경영환경	고질적 도로교통 체증 및 통행료 부담	해운, 항공운송 운임 및 부대비용 고가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4)를 토대로 분석

서비스업에 투자하여 현재 기업을 경영중인 외국인 투자기업은 경영환경 중 어떤 요

인을 가장 중요시하는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그림 4-4>에 도시되어 있다. 노무, 금융, 세무, 입지 및 공장설립, 물류, R&D 등 6개 경영환경 중 외국인 투자기업은 노무관련 경영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이 허용된 이 질문에서 전체 40개 서비스업 투자기업 중 29개 기업이 노무관련 경영환경을 가장 중요한 경영환경 요인이라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세무환경과 금융환경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 및 공장설립과 관련된 경영환경을 중요하다고 꼽은 기업은 1개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4-4>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환경 요인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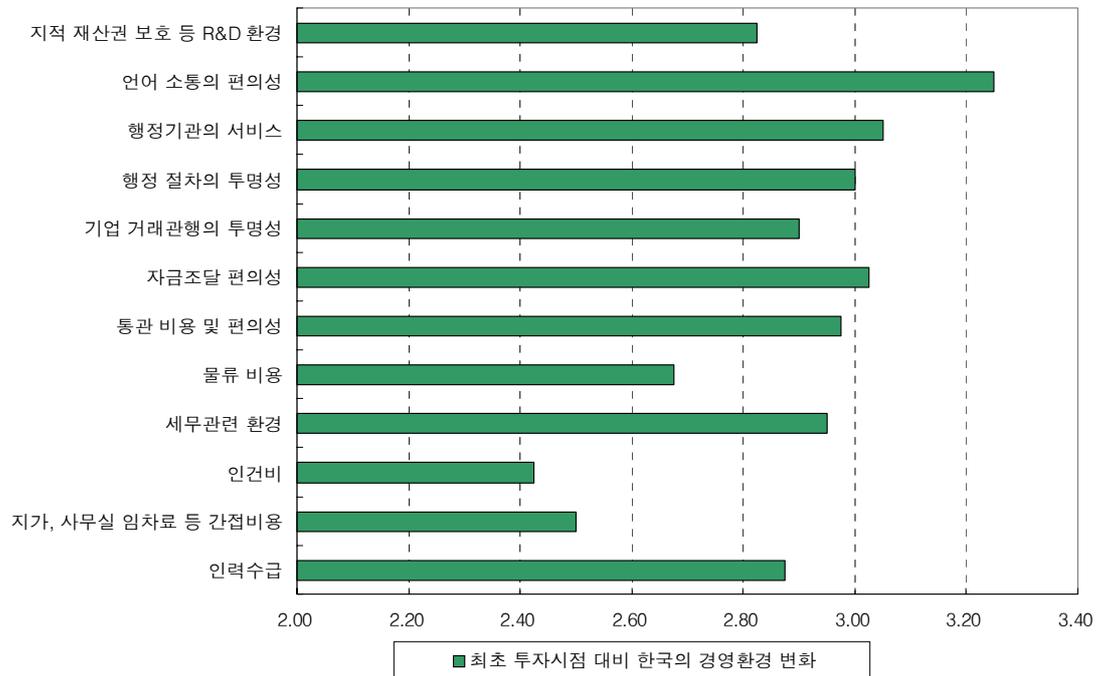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4)를 토대로 분석

<그림 4-5>는 서비스업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최초 투자시점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경영환경이 어떻게 변했다고 느끼는가를 분석한 결과이다. 최초 투자시점 대비 현재의 경영환경이 매우 나빠졌다는 1점, 변화가 없다는 3점, 매우 좋아졌다는 5점을 부여하는 5점 척도로 분석하였다. 질문 항목은 인력수급, 세무환경, 자금조달 편의성 등 12개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외국인 투자기업은 최초 투자시점에 비해 한국의 경영환경이 큰 변화가 없거나 다소 나빠진 것으로 응답하였다. 최초 투자시점 대비 경영환경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된 항목은 언어소통의 편의성(3.25점), 행정기관의 서비스(3.05점), 자금조달 편의성(3.03점)에 불과하며, 행정절차의 투명성은 변화가 없다고 분석되었다. 나머지 8개 항목에 대해서는 최초 투자시점에 비해 오히려 경영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특히 인건비(2.43점)와 지가, 사무실 임차료 등 간접비(2.50점)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극복 이후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 등의

상승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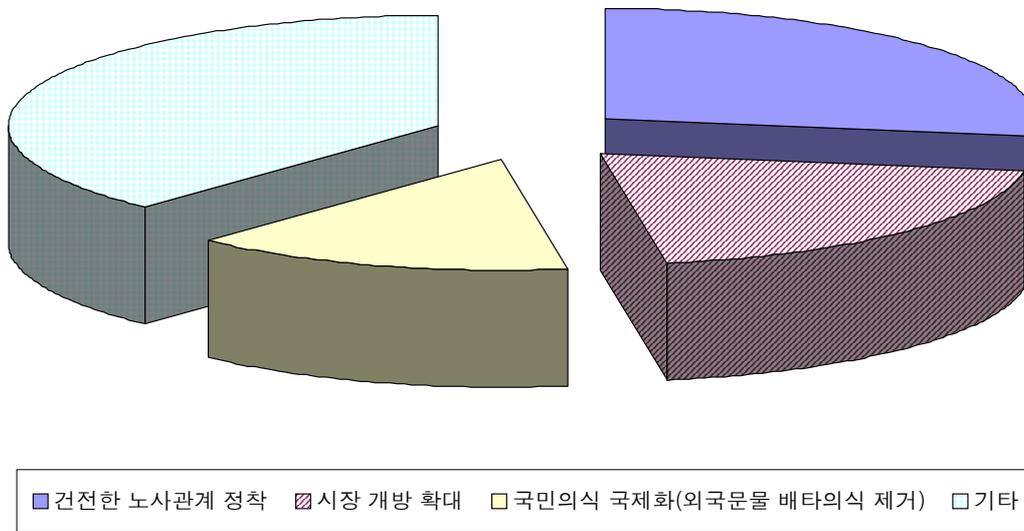
<그림 4-5> 서비스업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느끼는 경영환경 변화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4)를 토대로 분석

외국인 투자기업들에게 경영환경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질문한 결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이라는 응답이 27.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요 결과는 <그림 4-6>에 정리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법률 서비스, 교육, 출판, 항공, 농업 등에서의 시장 개방 확대가 19.74%, 외국문물에 대한 배타의식 제거와 같은 국민의식 국제화가 14.47%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은 38.16%였는데, 주요 기타 의견으로는 법인세 등 조세부담 완화, 투명한 기업거래 관행의 확보, 외국어(영어) 사용 보편화 등이 지적되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서비스업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노사문제에 대해 가장 큰 부담을 느낀다고 판단된다. 이는 다양한 설문조사 문항 속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향후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착이 동시에 수반되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6> 외국인 투자기업 확대를 위해 경영환경 중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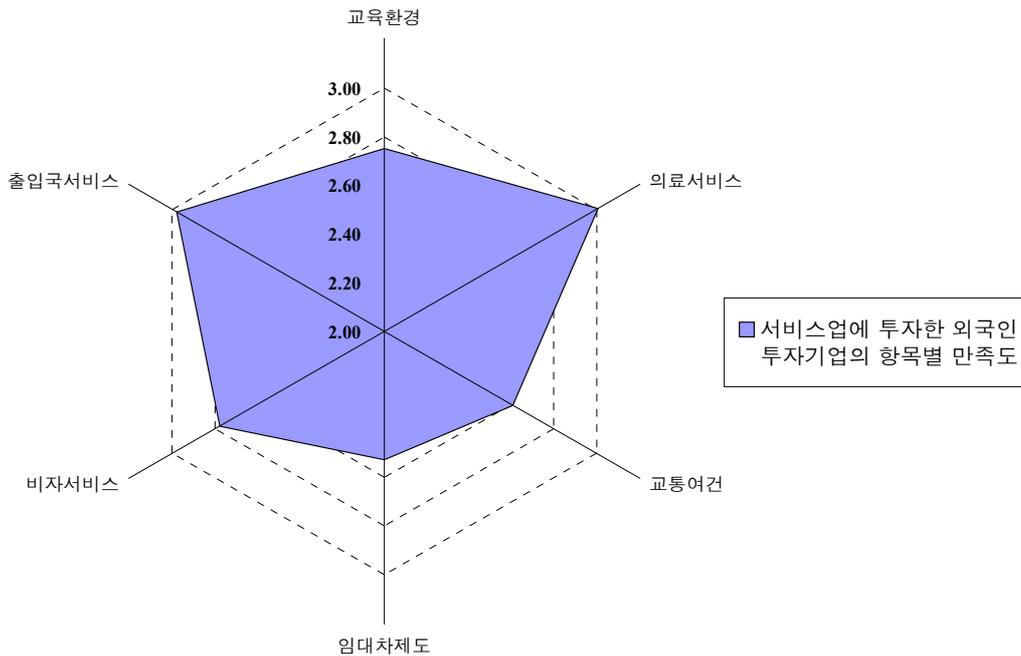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4)를 토대로 분석

4.2.3. 서비스업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대한 생활환경 부문 만족도 분석

서비스업에 투자한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의 생활 중 어떤 점에서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느끼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4-7>에 정리되어 있다. 생활환경은 자녀교육 환경, 의료서비스 환경, 교통 환경, 주거 환경, 비자 및 출입국 서비스 환경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1점은 매우 불만족, 3점은 보통, 5점은 매우 만족을 의미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보통 이하 수준으로 판단된다. 의료서비스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3.00점으로 나타났지만 보통 수준이며, 나머지 5개의 생활환경은 모두 3점 미만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주거환경인 임대차 제도(2.53점), 교통 환경인 교통 여건(2.60점), 교육 환경(2.75점) 등에서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교통 여건과 같은 일부 생활환경은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의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단기적인 개선이 힘든 분야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생활 만족도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임대차 제도나 비자 및 출입국 서비스와 같이 외국인 투자자에 한정된 생활환경에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교통이나 의료와 같은 내외국인에 공통된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4-7> 서비스업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생활환경 항목별 만족도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4)를 토대로 분석

앞서 분석한 6개의 생활환경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4-3>에 정리되어 있다. 교육환경 측면에서는 외국인학교의 부족과 외국인학교 시설의 부족이 가장 불만족스러운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전용학교에 대한 시설 확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의료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의료진의 언어 문제와 진료 내용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외국인학교 처럼 외국인 전용 병원의 설립과 확충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표 4-3> 서비스업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생활환경 중 가장 불만족스러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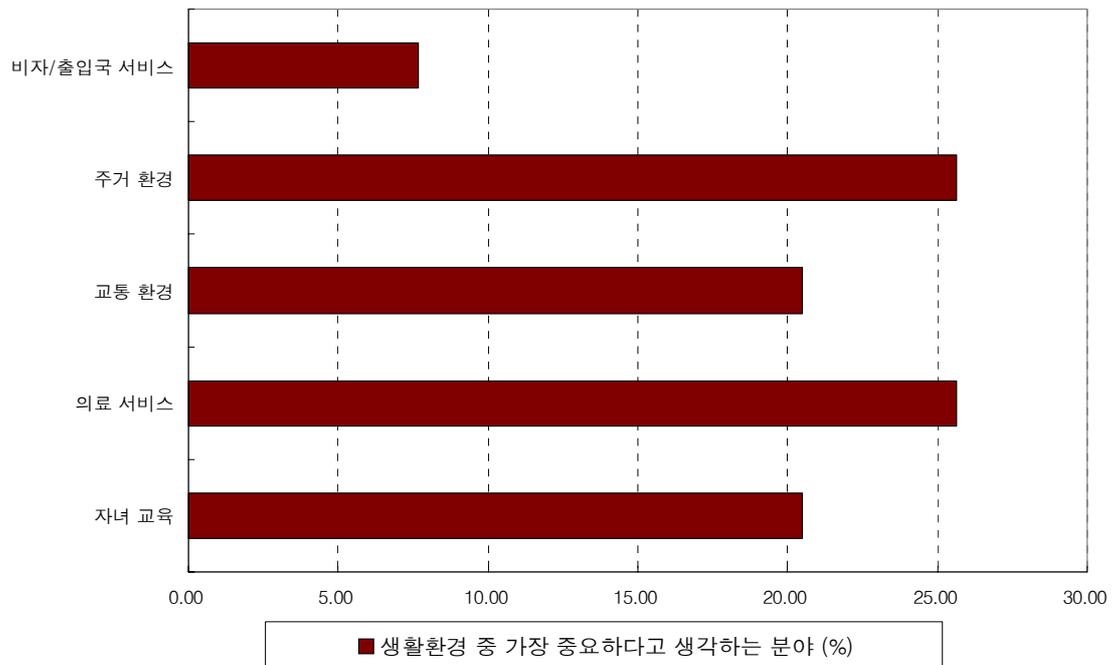
생활환경	1순위	2순위
교육 환경	외국인학교 부족	외국인학교 시설 부족
의료 서비스	의료진의 언어 문제	진료내용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교통 여건	난폭 운전	주차장 부족
임대차 제도	높은 임차료	월세 물건 부족
비자 서비스	담당직원의 태도	비자 체류기간
출입국 서비스	담당직원의 태도	외국인전용 레인 부족 담당직원의 언어 문제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4)를 토대로 분석

교통 여건 측면에서는 난폭 운전과 주차장 부족이, 임대차 제도 측면에서는 높은 임대료와 월세 물건 부족이 지적되었다. 주목할만한 점은 비자 서비스와 출입국 서비스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점 1순위로 지적된 것이 담당직원의 태도라는 사실이다. 이는 앞서 세무관련 경영환경에서 조세당국의 고압적 태도가 불만족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적인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교육, 의료, 교통, 주거, 비자/출입국 서비스 등과 같은 생활환경 중 서비스업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그림 4-8>에 도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거 환경, 교통 환경, 의료서비스 환경, 자녀 교육 환경 등에 대해 비슷한 정도의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환경과 의료 서비스 환경에 대한 중요도가 약간 높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4개의 요인은 모두 20% 이상의 응답을 얻고 있다. 반면, 비자/출입국 서비스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총 3건으로 7.69%로 조사되었다.

<그림 4-8> 외국인 투자기업이 생활환경 요인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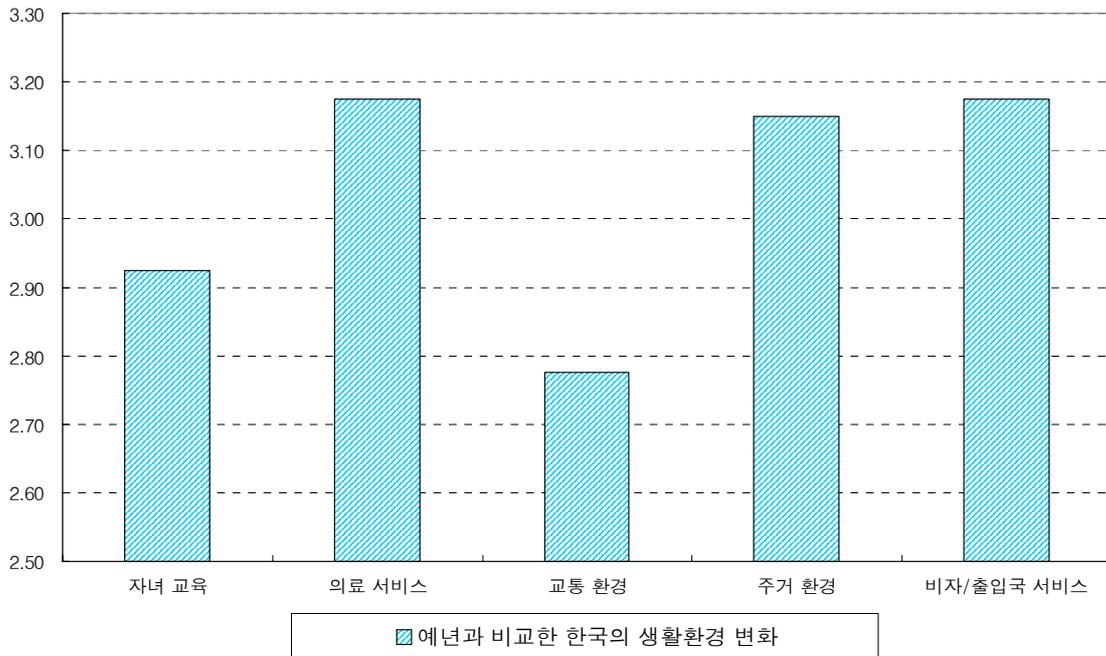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4)를 토대로 분석

<그림 4-9>는 서비스업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예년과 비교해 볼 때 한국에서의 생활환경이 어떻게 변했다고 느끼는가를 분석한 결과이다. 예년 대비 현재의 생활환경이 매우 나빠졌다는 1점, 변화가 없다는 3점, 매우 좋아졌다는 5점을 부여하는 5점 척도로 분석하였다. 질문 항목은 자녀 교육, 의료 서비스, 교통 환경, 주거 환경, 비자/출입국 서비스 등 5개이다. 분석 결과, 교통 환경과 자녀 교육 환경은 예년에 비해 나빠졌다는 결과를 얻었다. 생활환경이 가장 나빠진 분야는 교통 환경으로 평균 2.78점이었으

며, 자녀 교육 환경 역시 2.93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 서비스 환경(3.18점), 비자/출입국 서비스 환경(3.18점), 주거 환경(3.15점) 등은 평균적으로 예년보다 개선되었다는 응답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이 결과를 앞의 <그림 4-7>과 연계해서 분석해 본다면 예년 보다 개선되긴 했지만 만족도 수준은 여전히 평균 이하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4-9> 서비스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느끼는 생활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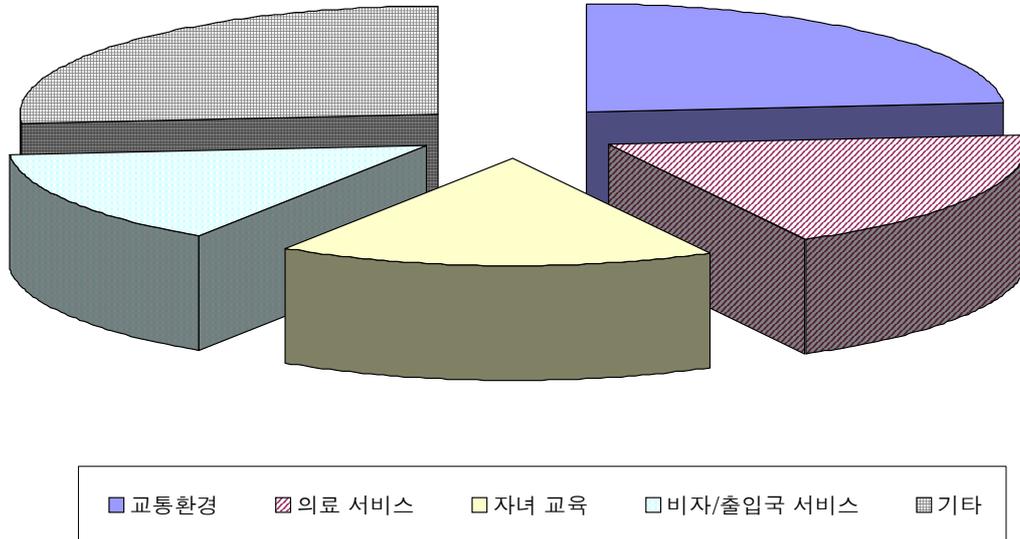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4)를 토대로 분석

생활 환경 중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 이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그림 4-10>에 정리하였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응 답은 교통 환경으로 전체의 23.68%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의료서비스(18.42%), 자녀 교육(17.11%), 비자/출입국 서비스(14.47%)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도 26.32%나 되었 는데, 기타 의견으로는 주거 환경 측면(9.21%), 레저나 여가 측면(7.895) 등이 주로 지적되 었다.

외국인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과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이 느끼는 경영 및 생활환경에서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4-1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외국 인 직접투자의 유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한국 시장의 규모 및 경제성장률, 임금수준, 법인세나 관세율, 국가의 투명성, 투자유치기관의 투자유치 활동 등을 들 수 있 다. 다음으로 한국에 기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노조 문제, 임금 이나 퇴직금 제도, 세법 개정, 인프라 부족과 같은 경영환경과 교육, 주거, 의료, 교통 여 건과 같은 생활 환경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투자한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의 투자확 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현지 시장에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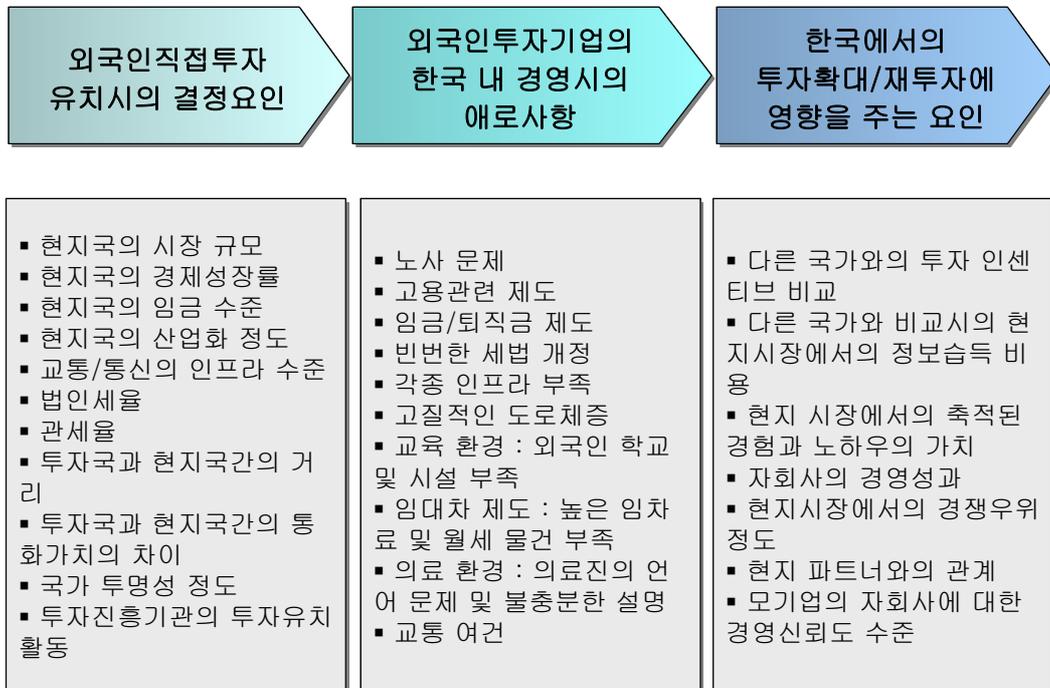
정보습득비용을 줄여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4-10>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생활환경 중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4)를 토대로 분석

<그림 4-11> 외국인투자의 유치, 경영, 투자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정리



V.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서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언

본 절에서는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보다 활발히 유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서 현재까지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아직 미미하며, 보다 많은 외국 기업을 유치할 여력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우선, 서비스업 전체로 보면 한국 시장은 여전히 외국인 직접투자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표 5-1>은 선진국 중 서비스 업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큰 상위 10개국과, 개도국 중 규모가 큰 7개국을 비교하고 있다. 표를 통해 볼 때, 한국은 싱가포르, 대만, 홍콩에 비해 서비스업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훨씬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한국 시장은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판단된다.

<표 5-1> 서비스 업종에 대한 국가별 외국인 직접투자 비교(1990-2002년)

(단위: 백만 달러)

국가		1990-1994년 평균 Flows	1995-1999년 평균 Flows	2000-2002년 평균 Flows
Developed Countries	미국	23,867	73,901	108,175
	독일	5,016	20,340	91,495
	영국	8,549	32,410	51,477
	네덜란드	4,167	13,527	37,604*
	프랑스	8,244	20,512	35,398
	스페인	4,195	5,446	23,014*
	일본	2,005	6,073	18,442
	덴마크	956	5,078	14,584
	아일랜드	11	3,483	9,820
Developing Countries	스위스	1,250	4,524	8,346
	홍콩	n.a.	16,540	30,647
	브라질	n.a.	14,786	15,757
	중국	n.a.	15,760	12,805
	멕시코	4,344	3,565	10,785
	싱가폴	n.a.	9,067	5,716
	대만	662	1,565	3,176
한국	289	1,708	2,232	

주 : *는 2000-2001년의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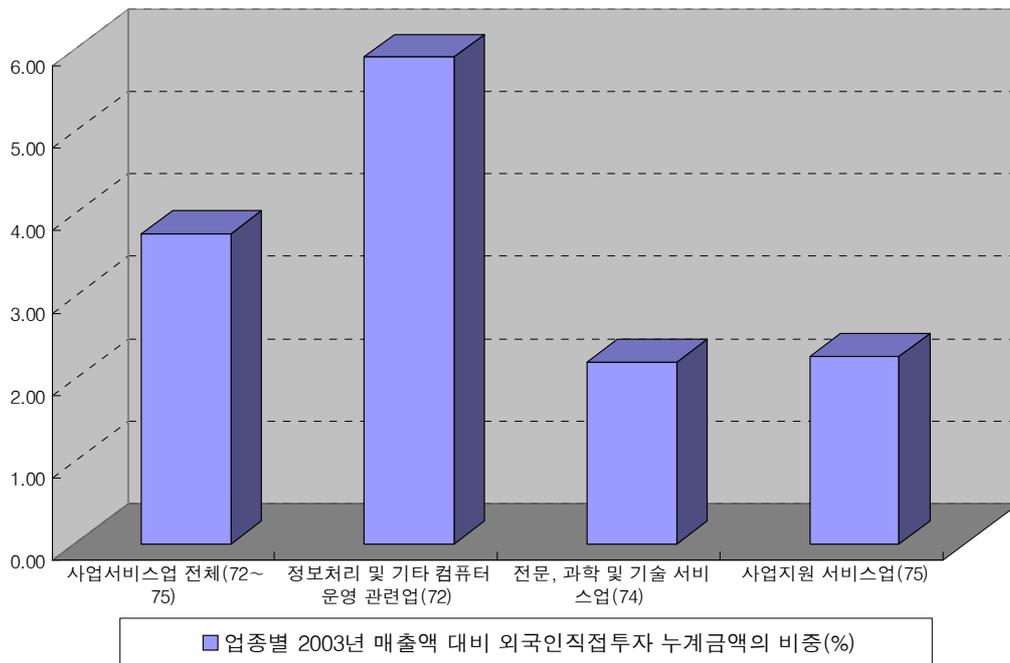
자료: UNCTAD(2004), pp.304-305를 토대로 정리

<그림 5-1>은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시장 규모와 현재까지의 외국인 직접투자 금

액을 비교하여 도시하고 있다. 자료의 제약상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매출 규모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매출 규모를 직접 비교할 수 없었다. 대신, 그림에서는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매출 규모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비교하고 있다.

비즈니스 서비스업 전체로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누적 투자금액은 2003년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업 매출의 3.76% 수준이다. 업종별로 보면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은 5.9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20%,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2.27%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판단할 때,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업 시장 규모에 비해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은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향후 보다 많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5-1>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국내 시장 규모와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 비교



주 :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1971-2004년의 누계액이며, 1달러는 1,000원으로 환산함.

연구개발업은 국내 통계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

자료 :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현황」, 2004. 를 토대로 분석

둘째, 투자유치 목적에 맞는 표적 업종 선정이 필요하다. 우선,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려는 주된 목적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그 후 이에 적합한 세부 업종을 선정하고, 세부 업종별 구체적인 유치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직·이건우(2003)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분류 기준이 기관별, 목적별로 상이하고 다양한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정책추진이 어렵다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정책목표별로 해당 정책목표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서비스 업종을 분류한 바 있는데, 그 중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내용은 <표 5-2>와 같다.

만약,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려는 주된 목적이 고용증대

하면 시설관리, 인력공급, 과학기술 등과 같은 업종 위주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기반 확충이 목표라면 외국인 직접투자가 광고, 정보처리, 연구개발과 같은 업종에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모든 업종에 대해 똑같은 노력을 기울일 수는 없다. 따라서, 투자유치의 목적을 먼저 확인하고, 그에 적합한 업종 위주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표 5-2>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중 정책목표 달성에 적합한 주요 업종

정책 목표	사업서비스 부문 중 정책목표 달성에 적합한 서비스 업종
생산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745), 정보처리(723), 연구개발(731), 법률(7411), 회계(7412), 엔지니어링(7432), 시장조사(7421)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731), 엔지니어링(7432), 법률(7411), 회계(7412), 시장조사(7421)
고용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관리(7511), 인력공급(7512), 과학기술(744), 디자인(746), 컴퓨터운영(729), 온라인정보제공(724), 시장조사(7421), 컨설팅(74222), 소프트웨어개발(722), 엔지니어링(7432)
서비스 혁신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처리(723), 광고(745), 연구개발(731), 시장조사(7421), 엔지니어링(7432)

주: 괄호안은 KSIC 코드임

자료: 이상직·이건우(2003)의 pp.29-30을 토대로 정리

셋째,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림 5-2>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관련된 국내 주요 기관과 역할을 도시하고 있다.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각 부처에서 산발적인 관리와 평가가 수행되고 있는데, 개별 조직에서의 업무와는 별도로 중앙 정부나 독립된 기관 차원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관련된 현황 전반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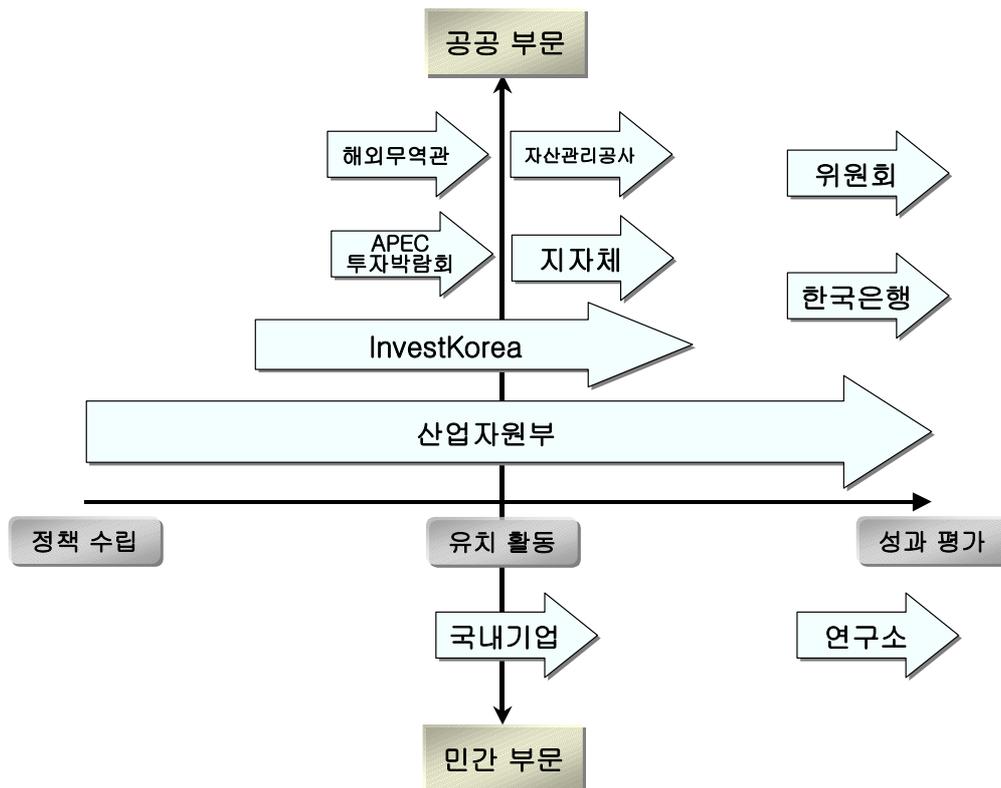
예를 들어, 개별 조직에서 축적된 경험이나 자료가 제대로 공유되고 있는지, 외국인 직접투자가 유치된 이후 그 결과에 대해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 공적인 기관의 유치활동이 과연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지, 오히려 전략적으로 사전에 노출되게 만들어 투자유치기관을 회피하도록 만들지는 않는가

에 대해서도 분석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투자유치기관이 실제 투자유치단계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은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조직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좋은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다국적 기업의 전략 흐름이나 산업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정책목표를 먼저 제안할 수 있는 부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선도기업의 전문가와 관료, 학계 등을 망라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들이 정책 제언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가동시키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것이다.

또한, 국내 각 지역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특화산업 또는 전문 육성산업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외국인 투자자나 다국적 기업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의 요구조건을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초기단계부터 Invest Korea의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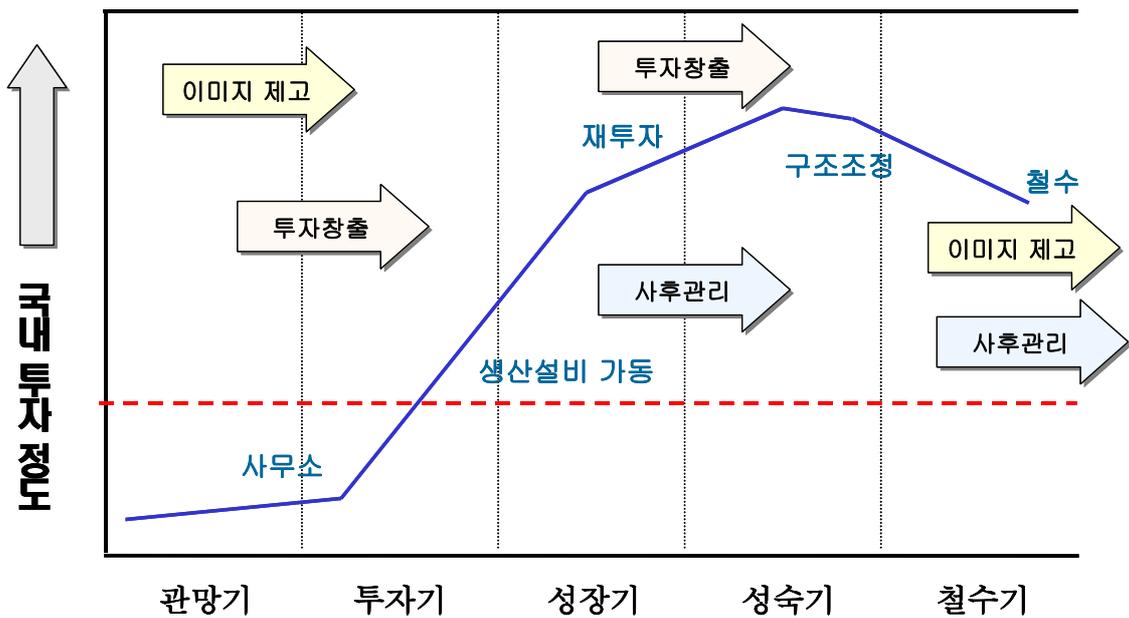
<그림 5-2>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관련된 국내 주요 기관



넷째,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명주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기투자한 외국인 기업의 재투자를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마케팅 관리는 크게 이미지 제고, 투자창출, 사후 관리로 나눌 수 있다.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관심을 보이는 시

기에는 한국 시장에 대한 이미지 제고가 가장 적합한 마케팅 수단이었지만, 이미 한국에 투자한 다국적 기업에게는 사후 관리와 이를 통한 재투자 유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서도 컨설팅과 같은 일부 업종은 이미 한국 시장에서 성숙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한국 시장으로의 재투자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콘텐츠나 연구 개발과 같은 업종은 한국 시장이 여전히 투자기와 성장기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5-3> 수명주기(life cycle) 개념에 입각한 외국인 투자자 관리



<표 5-3>은 기투자한 외국 기업의 재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정리하고 있다. 자회사의 경영성과, 자회사의 경영상태, 모기업과 자회사간의 관계, 파트너와의 관계 등은 개별 기업과 관련된 요인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 반면, 현지국의 투자환경 매력과 관련된 요인을 개선한다면 이미 투자한 기업의 재투자를 확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표 5-3> 외국인 투자기업의 재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통요인	추가요인	
현지국 투자환경매력도	자회사 경영상태	자회사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요인 : 시장크기, 임금 등 ▪ 사업편의적 요인 : 인센티브, 투자유치촉진활동 등 ▪ 사회정치적 환경 : 국가 위험도, 노사분규 등 ▪ 문화적 차이 : 문화적 거리, 심리적 거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회사 경영성과 : 수익성, 시장점유율 등 ▪ 자회사 경영상태 : 산업 내 상대적 크기, 상대적 시장점유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기업과 자회사간의 관계 : 모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경영신뢰도 등 ▪ 자회사 파트너와의 관계 : 경영통제력, 소유지분 통제력, 비소유지분 통제력 등

다섯째,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스타 플레이어 중심의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 앞에서 분석한 것처럼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서 500만 달러 이상의 중대형 투자건수는 5% 미만이지만, 이들은 전체 투자금액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라고해서 질적으로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대형 투자나 선도 기술을 가진 다국적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과 관리를 행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평균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으로 분석된다.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은 기본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서비스 기업들은 고객 기업을 따라 국내로 진출하는(follow the customer) 경우가 많다. 비즈니스 서비스 기업들이 다국적 고객 기업(client company)에 대해 서비스하기 위해 국내에 진출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또 다른 고객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을 때, 한국에 대한 비즈니스 서비스 기업들의 투자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그와 같은 기회가 적고, 또한 한국의 입찰제도 등에서 나타나는 불투명성을 우려해서 국내 투자규모를 줄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 다국적 고객 기업(client company)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면 함께 빠져나가기 위해 전략적으로 소규모 투자, 소규모 고용을 행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결국,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서 대형 투자를 유도하고, 스타 플레이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새로운 고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국적 고객 기업의 한국 이탈을 방지하며, 입찰 제도 등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불투명성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투자유치기관이 비즈니스 서비스 기업들과 서로 자문하고 자문을 받는 네트워크 관계가 형성된다면, 중장기적으로 투자 확대나 신규 대형투자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Invest Korea, 그리고 비즈니스 서비스 유치

기업간의 정기적인 교류협력체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여섯째,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활발히 유치하고 이와 연계하여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입지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문화 콘텐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이는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한 영역이다. 서울시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콘텐츠와 관련된 공간을 조성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려는 전략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 1985년 향만 및 향만배후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성공적 유치하여 관련 지역들의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킨 사례가 있다. <표 5-4>는 김형태 외(2003)의 연구에서 제시된 중국의 향만 및 향만배후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정책과 시사점을 정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1985년 향만부문에 대한 외자유치 인센티브 규정까지 마련하였으며, 향만 개발에 이어 내륙지역의 성장전인을 위해 향만배후지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이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였다. 우리나라도 비즈니스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함에 있어 업종별로 특정 지역과 연계하여 집중 유치하는 입지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표 5-4> 중국의 향만 및 향만배후지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 정책 및 성과

항목	주요 내용
향만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및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5년, 향만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중외합자 향만부두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잠정우대규정”을 마련 ▪ 30년 이상의 투자사업자에게 투자후 5년간 법인세 면제, 추후 7년간은 법인세 75% 감면, 그 이후에는 50% 감면, 지방세 감면, 고정자산 조기상각 허용, 효율결정 자율권 보장, 부대사업 투자허용, 운영기간 연장 허용 등을 실시 ▪ 외국 터미널 사업자로부터 30개 사업, 32.7억 달러 이상의 투자 유치
향만배후지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및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4년, 공업·과학 발전, 선진기술도입 및 외자유치를 위한 특구로 경제기술개발구 제도를 창설 ▪ 이후 향만배후지에 33개, 내륙지역에 21개 개발구를 운영함 ▪ 1990년에는 보세구 제도를 창설, 향만배후지에 13개 보세구를 설치함 ▪ 향만배후지에 73억 달러에 이르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함 ▪ 향만배후지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중국 전체의 14% 내외, 수출입의 9% 내외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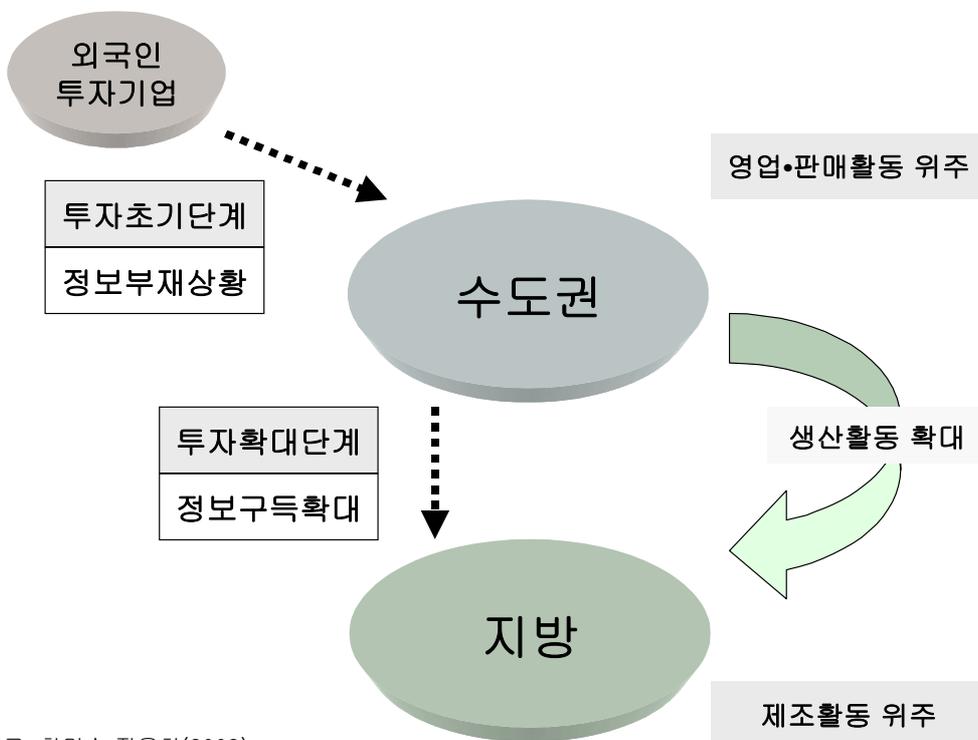
자료: 김형태 외(2003)

일곱째, 비즈니스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는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

자 유치와 연계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차미숙·정윤희(2002)는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입지이동 경로를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즉, 투자 초기단계에는 투자 대상국에 대한 정보부재와 위험최소화를 위해 서울 등 중심지역내 입지를 선호하다가, 생산활동을 확대하면서 수도권 주변지역이나 중부권으로 이전하는 입지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은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지원하는 산업이다. 제조업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또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한다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역시 고객을 따라 (follow the customer)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외국인 제조기업은 기업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비즈니스 서비스를 수도권 소재의 전문 서비스업체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수도권 업체의 약 98%가 수도권 내 서비스 업체를 활용하는 반면, 지방업체는 약 1/3만이 해당 지역 내의 서비스업체를 활용하고 있다(차미숙·정윤희, 2002). 앞으로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가 확대되고 이들이 지방으로 많이 이전될 것이므로, 지방에도 이들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서비스 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것이다. 역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즈니스 서비스 단지가 잘 정비된다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보다 활발히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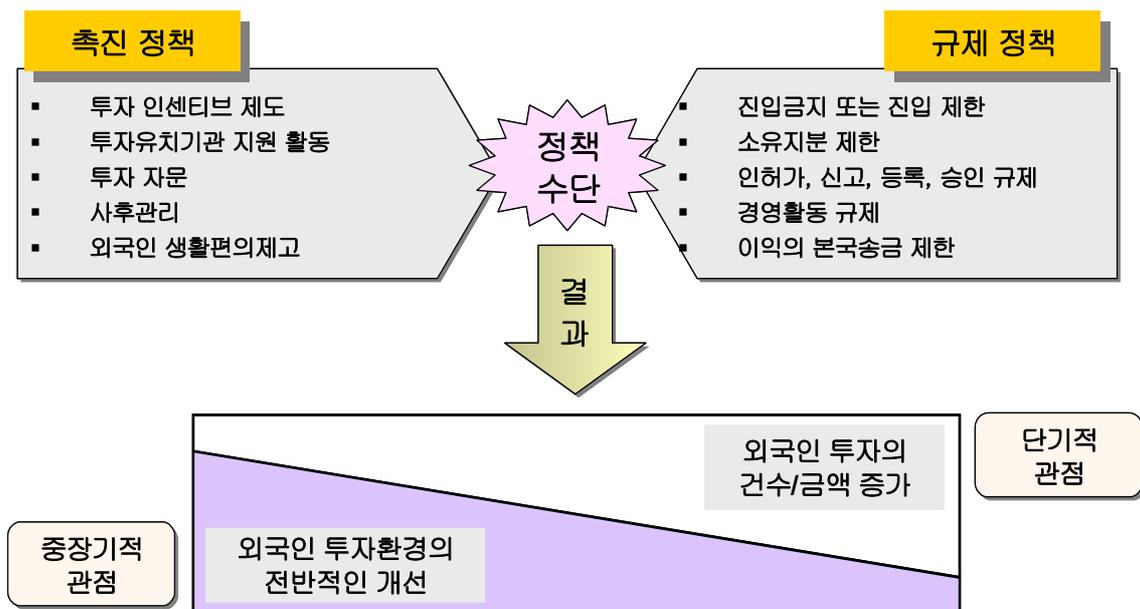
<그림 5-4> 외국인 투자기업의 단계적·점진적 입지 이동



여덟째,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와 인센티브를 적절히 활용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점진적인 투자 확대를 꾀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려는 국가들은 모두 비슷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촉진 정책만 가지고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확대하기 어렵다. 또한, 적절한 규제정책은 국가적 관점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제한하고, 기투자한 외국인 기업의 성과가 국내에 최대한 파급되도록 유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건수나 금액 증가가 주요 목표가 되겠지만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환경의 전반적 개선을 통해 한국이 가지는 투자매력도를 증대시켜야 하겠다. 특히 비즈니스 서비스의 경우는 네트워크와 인적요인의 이전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경제적 투자환경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주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림 5-5> 외국인 직접투자를 위한 규제와 인센티브의 활용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보다 활발히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질이 높아지고 국제경쟁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표 5-5>는 지난 3년 동안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위상이 강화될수록 이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양과 질이 개선될 것이며, 이는 다시 국내 비즈니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표 5-5>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논의된 내용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전략 (2002년 6월, 산업자원부)	비즈니스서비스산업 경쟁 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2004년 6월, 산업연구원)	경제장관간담회 (2004년 9월, 산업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의 관행 및 제도 개선 ▪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확대 ▪ 비즈니스 서비스 시장수요 창출 ▪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시장친화적 가이드라인 제시 및 협업적 기업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 R&D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센터 구축 ▪ 비즈니스 서비스 센터 기능의 구축 ▪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공동 인력개발 프로그램 도입 ▪ 선진 비즈니스 서비스기법 도입 ▪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화 및 인증제도 정착 ▪ 아웃소싱 활성화를 위한 SLA 사업의 재정비 ▪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연구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니스 서비스 기업의 역량강화 및 대형화 유도 ▪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한 수요창출 기반 조성 ▪ 비즈니스 서비스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발전 인프라 구축 및 지원체제 강화

VI. 결론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유치도 본질적으로는 투자유치 전략의 전반적인 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전반적인 투자환경의 개선이 요구된다. 하지만, 투자유치측면에서 볼 때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은 다음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은 증폭가치(augmented value)를 창출하는데서 경쟁력을 얻는 산업이고, 규모가 소규모이지만, 고급인력의 이전을 통해서 가치이전(value transfer)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의 기술자, 전문가 내지 특정부문에 있어서의 연구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생활환경과 업무환경의 개선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중요하다. 이는, 핵심인력이 소규모로 움직이기 때문에, 생활환경과 업무환경의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진출시기나, 규모, 형태를 결정할 때 다른 나라라는 대안을 찾고 출장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거나 최소한의 소극적인 투자만을 하게된다는 것이다. 특히, 투쟁적인 노사관계는 투자의 형태와 투자규모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기획단계부터 매우 민감하게 고려되어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이미지 자체가 투쟁적 노사관계가 한국의 모습으로 각인되는 것은 국가이미지홍보 전략의 실행이 시급한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노동쟁의 현장에서 바로 투쟁적 근로자들에 의해서 불리워지는 "님을위한 행진곡" 같은 노래가 정부 관료들에 의해서 불리워지는 것은 광주 운동과 같은 역사적인 연계를 알지 못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어떠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은 동종 또는 유사업종간의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을 만드는 것이 투자유치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는 마치, 유류회사가 휘발유만 따로 생산해서 팔고, 경유를 따로 생산해서 파는 것보다, 정유탑을 세우고 가열하여 동시에 함께 생산하는 것이 원가면에서 유리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국내에 진입한 기업들이 다양한 고객기업(client company)들로부터 연관생산 또는 연관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국내기업과 정부입찰에 차등을 둔다거나,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아웃소싱기업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외적인 요인이 비즈니스 서비스 계약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한국시장이 이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은 보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보완적 관계에 있는 제조업의 투자유치와 상관관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대표적인 선도기업을 중심으로한 제조업유치전략과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유치 전략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buzz-marketing개념의 유치전략 수립과 국가의 인프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건전한 노사문화정착을 포함한 투자환경 및 생활환경개선 노력을 꾸준히 추진할 때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직접투자가도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장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에서 뚜렷한 사업기회에 대한 신호를 시장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자체를 중심으로 국가경쟁력 또는 지방특화산업과 보완적 관계를 통해 이른바 밸류 넷(value net)을 형성할 수 있는 외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는 문화컨텐츠 산업이 특화산업으로 지정되어 있고, 상암동 DMC(Digital Media Center)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곳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선도적인 비즈니스 서비스 업체를 유치한다면 이는 시장에 좋은 신호를 보내는 적절한 예가 될 것이다. 또, 대규모 컨벤션 센터가 있는 고양시, 출판문화단지과 헤이리 예술단지가 있는 파주시 같은 곳에 컨벤션 기획전문 업체나 문화이벤트 업체 등을 유치하고 국내 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역시 좋은 시장신호가 될 것이다.

전략적으로 볼 때 한국의 비즈니스 서비스 시장은 다국적 유통업체들이 중국시장으로 가는 교두보라는 의미를 가진다. 다국적 유통업체들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에서 사전 시장조사의 경험을 쌓으려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한국의 비즈니스 서비스 시장은 최소한 10여년 이상은 매력적인 투자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적극 활용하여 다국적 유통업체들을 국내로 끌어들이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서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대안에는 규제 및 제도의 투명화와 행정비용의 최소화가 반드시 포함되어 이를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조직 측면에서는 Invest Korea를 최대한 활용하여 선도업체들의 국내진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business incubating center를 운영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특히, 외국 기업이 관심을 두는 부분에 대한 기획 마케팅 조사를 외국기업과 Invest Korea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Invest Korea의 투자유치 전략수립에도 연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투자유치기관으로서 Invest Korea의 전문성도 축적될 수 있을 것이다.

점점 더 글로벌화되어가는 개방경제 체제하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히,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은 그 성장 가능성이나 제조업과의 관련 효과를 고려할 때 글로벌 선도기업의 국내 유치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이다. 산업 흐름에 대한 파악과 대응이 늦어 세계 시장에서 힘든 경쟁을 벌였던 제조업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서는 산업 흐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선진 외국기업의 국내 유치도 그 맥락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두용·박중구·이원복·변창욱, 2003, “2003년 제조업 외국인투자 현황”, 산업연구원.
- 강한균, 2002, “인적자본과 외국인직접투자의 상호작용이 한국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무역학회지, 제27권 제3호, 265-284.
- 김무형, 2001, “고정가격하에서의 수여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과”, 산업경제연구, 제14권 제3호, 51-67.
- 김병순, 2002, “외국인직접투자의 성장유형과 유치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북방학회논집, 제10호, 7-30.
- 김승민, 2004, “영국의 외국인투자 지원체제에 관한 연구”, 유럽연구 제 19권, 2004년 여름, 173-195.
- 김승민, 2004, “유럽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주요 특징과 시사점”, 한국프랑스학논집, 제47집, 435-458.
- 김승진, 1998, “M&A형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 KDI 정책포럼 제143호, 1998.10.19.
- 김승진, 1999, “외국인투자의 효과에 대한 고찰”, 한국개발연구원.
- 김승진·김호연·조성욱, 1998,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KDI 정책포럼 제136호, 1998.3.3.
- 김완순·오호영, 2002, 「아젠다 코리아: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위한 성공가이드」, 한국경제신문.
- 김완순·임성훈, 2000, “투자진흥기관의 투자유치활동이 외국인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 국제통상연구, 제5권 제1호, 109-129.
- 김종섭, 2001, “멕시코에서 외환위기 이후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와 영향”, 라틴아메리카연구, 제14권 제2호, 251-275.
- 김준영·이용섭, 2001,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효과 분석”, 재정논집, 제16집 제1호, 109-132.
- 김창규·이원희·강감찬, 2002, 「외국인직접투자 얼마나 알고계십니까?」, 애드코아.
- 김창도·최순규·정구현, 2004, “외국인 투자기업의 인수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전략경영학회 하계통합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철교·신우석, 2001,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투자, 소득, 수출·입 및 환율을 중심으로”, 국제통상연구, 제6권 제1호, 31-52.
- 김형태·성숙경·이종필, 2003, “중국의 항만 및 항만배후지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시사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김홍기, 2004, “비안정 패널자료를 활용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장기효과: 개도국을 중심으로”, 국제경제연구, 제10권 제1호, 21-48.

김희주·남장근·김승택·최봉현, 2000,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발전전략」, 을유문화사.

노용진·김동우, 2003,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2004, “비즈니스서비스산업 애로실태조사 결과”, 비즈니스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공개토론회 발표자료, 2004.6.2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4, “2004년 외국 투자기업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문승래, 2000, “외국인 직접투자의 투자동향과 투자결정요인 분석”, 전문경영인연구, 제3집 제2호, 149-176.

문승래, 2002, “중진국과 개도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투자결정요인 분석: 한국과 중국의 경우”, 동북아경제연구, 제14권 제1호, 107-159.

민기, 2001, “외국인 투자 유치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 일본 자동차기업의 미국 현지 공장 설립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10권 제3호, 109-129.

민기, 2002,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4호, 145-166.

박용수, 2001, “MEM을 통해 본 EU 회원국들의 외국인투자정책 및 투자환경”, 유럽연구 14호, 2001년 겨울, 104-126.

박진수, 2004,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 현황과 과제”, 월간 KIET 산업경제 2004년 7월, 3-12.

박진수, 2005, “글로벌 및 국내 컨설팅 기업의 경쟁구도 변화”, 월간 KIET 산업경제 2005년 2월, 22-32.

박태호, 2000, “외환위기 이후의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과 정책의 평가”, 국제통상연구, 제5권 제1호, 89-108.

박흥식·공성경, 2001, “투자유치 마케팅의 문제: 지방정부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를 중심으로”, 중앙행정논집, 제15권 제2호, 173-198.

배희연, 2002, “UAE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2004,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 현황과 과제”, 비즈니스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공개토론회 발표자료, 2004.6.25.

산업연구원, 2004, “일본의 신산업창조전략과 시사점”, e-KIET 산업경제정보, 제197호, 2004.5.10.

산업자원부, 2002,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2002.6.19.

산업자원부, 2004, “비즈니스서비스산업 발전방안”, 2004.9.18.

산업자원부, 2004, 「외국인투자기업현황」, 2004.

산업자원부, 2005, “2004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및 2005년 전망과 과제”, 산업자원부 보도참고자료, 2005년 1월 5일.

성효용, 2003,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성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기업규모 및 나이를 중

- 심으로”, 산업조직연구, 제11권 제2호, 29-45.
- 송의달, 2004, 「외국인 직접투자: 21세기 글로벌 트렌드」, 살림.
- 안세용, 2002,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료집단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수용의식 비교분석”, 무역학회지, 제27권, 제3호, 229-243.
- 양동훈, 2000, “한국의 노동환경과 외국인 직접투자”, 경영논총, 제11-2집, 169-179.
- 연태훈, 2003,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간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오수균, 2003,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7권 제3호, 323-346.
- 온기운·조영삼, 1997,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실태 분석”, 산업연구원.
- 온기운·조현태·이경숙·최봉현, 1996, “한국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방안”, 산업연구원.
- 유임수·박용수, 2001, “Significance of Foreign Investment for Korea’s Economic Growth: Lessons for Vietnam”,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1권 제2호, 315-345
- 윤상직·오윤·오용식, 2005, 「외국인직접투자 제도해설」, 세경사.
- 이계만, 2003,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소득과세의 한·중 비교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27집, 275-295.
- 이광훈, 2003, “정보통신산업에서의 외국인 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정보통신정책학회 지식기반2003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 이광훈·조혜영, 2003, “외국인 직접 투자의 기술 파급효과 연구: IT산업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 03-08.
- 이두환, 2003, “외국인 직접투자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검토와 시사점”,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3권, 제2호, 189-216.
- 이병기, 2002, “외국인 직접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 이상직·이건우, 2003, “정책목표별 주요 서비스업 분류 및 서비스산업 정책지원 방안”, 산업연구원, 정책자료 제242호.
- 이상학, 2004, “외국인투자 유치: 서비스산업에서의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성봉, 2004, “Assessme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Liberalization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Korea”, 경상논총, 제29집, 133-156.
- 이성봉·김관호·원신희, 2001, “외국인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성봉·김종근·이형근, 1998, “외국인투자유치정책: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투자자유지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성봉·신동화·이형근, 1998,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시사점: 영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KIEP 계간 대외경제정책연구 1998년 가을호, 157-187.
- 이성봉·이형근, 1998, “외국인투자유치정책: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투자인센티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우재·김효선, 2003, “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관세학회

- 지, 제4권 제2호, 93-111.
- 이원희, 2001,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시스템에 관한 한·영 사례비교연구”, 기업경영 연구, 제14집, 25-49.
- 이장호, 2001, “외국인직접투자의 특성, 경쟁우위,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경영논총, 제12집, 145-170
- 임성훈, 2000, “외국인투자정책목표와 투자인센티브간 전략적 적합성에 대한 실증연구”, 무역학회지, 제25권 제3호, 1-16.
- 임성훈, 2003,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투자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국제통상연구, 제8권 제2호, 155-176.
- 임성훈, 2004, 「동북아시아 전략적 외국인투자 마케팅」, 학현사.
- 임천석, 2002, “한일 FTA와 외국인 직접투자”, 동서연구, 제14권 제2호, 67-84.
- 장윤종·전주성, 2000, 「글로벌 경제의 외국인 직접투자정책」, 을유문화사.
- 장윤종·한병섭, 2001, “외국인직접투자 조세지원제도의 운용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 정문현, 2001, “한국의 국제무역에 미친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과”, 경제학논집, 제9권, 제2호, 151-170.
- 진시원, 2003, “한국 외국인 투자구조의 문제점과 개선책”, 평화연구, 제13권 제1호, 173-198
- 차미숙·정윤희, 200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특성과 지역연계연구”, 국토개발원.
- 최순규·김창도, 2004, “외국인 투자기업의 진입유형과 성과: 인수와 신규설립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29권 제6호, 47-69.
- 최승담·신정미, 2001, “관광산업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의 개선방안: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24권 제3호, 147-166.
- 최창규, 2004, “국별 외국인 직접투자의 결정요인 분석”, 국제경제연구, 제10권 제1호, 49-68.
- 하종욱·최귀련, 2003, “외국인직접투자의 동태적 특성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제통상연구, 제8권 제1호, 25-51.
- 홍성훈, 2002, “Foreign Investors’ Evaluation on Korean Government Policie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경영학연구, 제31권 제4호, 975-991.
- Altshuler, R., Grubert, H. and Newlon, S.T., 1998, "Has U.S. Investment Abroad Become More Sensitive to Tax Rates?", *NBER Working Paper Series*, No.6383.
- Drabek, Z. and Payne, W., 2001, "The Impact of Transparency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WTO Staff Working Paper*, ERAD-99-02.(Revised November 2001).
- Gastanage, V.M., Nugent, B.J. and Pashamova, B., 1998, "Host Country Reforms and

- FDI Inflows: How much difference do they make?", *World Development*, 26, 1299-1314.
- Lipsey, R.E., 1999, "The Lo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U.S. Affiliates in Asia", *NBER Working Paper Series*, No.6876.
- OECD, 1999, *Strategic Business Services*, OECD.
- Root, F.R. and Ahmed, A.A., 1979, "Empirical Determinants of Manufacturing Direct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Economics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751-767.
- UNCTAD, 2004, *World Investment Report 2004: The shift towards services*, United Nations.
- Wheeler, D. and Mody, A., 1992, "International Investment Location Decisio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57-76.